



광주 廣州 의 文化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GwangJu



연주봉옹성

광주 廣州 의 文化  
너른고을 문화유산



## 우리 문화를 지키고 꽃피우는 밑거름

칭기즈칸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비교적 그 역사가 짧았던 이유는 정복한 국가를 철저히 몽골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몽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해서 몽골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문화는 한 나라의 생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려 그토록 애썼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문화는 그 민족의 뿌리이자 삶의 동력이며, 자존심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함과 더불어 자국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주문화원은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가 지정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한 권으로 묶어 2013년 12월에 『광주의 문화유산』이라는 문화재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금번에 발행하는 2판에는 지난 2014년 6월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특별히 조명하고, 1판 발간 이후인 2014년 5월에 지정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2호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을 추가하였다.

이 책자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폭넓게 알고 긍지를 느낌은 물론, 선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거울삼아 창의적인 문화를 꽂피우길 기대해 본다.

2015년 6월

광주문화원장 박 기 준



Chapter 1

역사 개관

광주시 연혁	07
문화재란 무엇인가?	08
광주시 문화재의 특징	08
지정문화재 현황	09
지정문화재 현황도	11



Chapter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13
-------------	----



Chapter 3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남한산성	18
	광주 조선 백자 요지	20
	남한산성행궁	22
중요무형문화재	갓일	24
	단청장	26



Chapter 4

경기도지정 문화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수어장대	30
	승렬전	32
	청량당	33
	현절사	34



<b>경기도 유형문화재</b>	침괘정	35
	연무관	36
	유정리 좌불상	37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38
<b>경기도 무형문화재</b>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39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40
	소목장	42
	사기장(분청사기)	44
<b>경기도 기념물</b>	석장(조각)	46
	맹사성선생 묘	48
	최향선생묘	50
	허난설헌 묘	52
	신립장군 묘역	54
	김자수선생 묘	56
	김군선생 묘	58
	망월사지	59
	개원사지	61
	신익희생가	62
	신흠묘역 및 신도비	63
	의안대군방석묘역	64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65
	지수당	66
	장경사	67
<b>경기도 문화재자료</b>	추곡리 백련암부도	68
	곤지암	69
	우리절 5층석탑	70
	우리절 석조부도2기	71



## 광주시 기념물

정충묘	74
정뇌경 묘지석 및 함	75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악시/ 김췌 묘역내 묘표·문인석	76
이극증묘역 내 석물	78
이택재	80
승렬전 제향	81
현절사 제향	82
광주 광지원 농악	83
산이리 지석묘	84
백인대	85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86
신남성 동·서 돈대	87
남옹성 무인각석	88
서흔남 묘비	89
탁지부축량 소삼각점	90
여성제 묘역 및 신도비	91
이 손 묘역 및 신도비	93
동래정씨 소평공파 종종 묘역 및 선물	95
선동리 고분군	97

광주의 축제	100
광주 관광	110
기타	122

## 광주시 연혁

### 구석기시대 – 조선시대

B.C. 6 (백제 온조왕 13년) 위례성(현 서울)에서 서부면 춘궁리(현 하남시)에 도읍을 옮기고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불렀음

370 근초고왕 25년까지 376년간 백제의 도읍지

940 (고려 태조 23년) 지금의 명칭인 광주(廣州)로 개칭

983 (고려 성종2년) 고려 성종2년에 광주목(廣州牧)을 둠

1577 (명종 10년) 광주부(廣州府)로 승격(23개면) : 경안, 오포, 도척, 실촌, 초월, 퇴촌, 초부, 동부, 서부, 구천, 중대, 세촌, 돌마, 낙생, 대왕, 언주, 왕륜, 일용, 월곡, 북방, 송동, 성곶, 의곡면

1626 (인조 4년) 남한산성 축성

1907 (조선 고종 44년) 군(郡)이 되어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 설치

### 1910 – 1960년대

1914 의곡면, 왕륜면을 수원군에 붙이고, 양평군 남종면을 편입(16개면)

1917. 12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서 경안면으로 이전

1963. 1. 11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의 5개리(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를 서울시로 편입

### 1970 – 1990년대

1973. 7. 1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부(6개리)를 성남시로 편입

1979. 5. 1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

1989. 1. 1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를 하남시로 편입

### 2000 – 현재

2001. 3. 21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 / 광주읍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으로 분리, 오포면이 오포읍으로 승격

2004. 6. 21 초월면, 실촌면 → 초월읍, 실촌읍으로 승격

2009. 5. 4 송정동 570번지에 광주시 신청사 개청

2011. 6. 21 실촌읍 → 곤지암읍으로 명칭 변경

##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文化)’는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를 특정 집단에 한정하면 특정 집단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인류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인류 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물질을 의미하는 ‘재(財)’를 붙인 것이 문화재이다. 즉 ‘문화재’는 삶의 양식을 실체로서의 물질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체로서의 물질은 눈에 보이는 유형(有形)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래나 춤처럼 무형(無形)의 것도 포함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유산’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것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네스코는 문화재를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다.

## 광주시 문화재의 특징

경기도 광주시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대 문화가 발달하였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하여 산이리 지석묘, 장지리 구석기 유적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곤지암읍에는 연곡리 유물 산포지와 상오향리 유물 산포지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 산포지가 있으며, 남한산성이 이 시기에 처음 축성되기도 했다. 오포읍·초월읍·도척면·퇴촌면 등지에 서는 유정리 건물지 등 고려시대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사용원 분원 설치, 실학, 의병항쟁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밖에도 시 전역에 걸쳐 분묘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최근의 문화재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시 역동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장지동 유적 및 곤지암읍 신대리의 백제초기 마을 유적,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시기의 주거지, 쌍령동 및 선동리에서 확인된 신라 무덤 등 한강 유역이 백제의 도읍지였고,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광주에는 삼국시대의 유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따라서 광주시 문화재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 시기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 문화재 현황

광주시는 남한산성을 수축한 아래 조선시대 국가의 보장처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성 안에는 비상시 종묘사직을 옮겨 놓을 건물은 물론 왕이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행궁도 갖추고 있었다. 또 분원리에는 사용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거의 전역에 걸쳐 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는데, 이 시설물들과 터는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는 갓일(입자장)과 단청장이 있으며, 경기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9점, 무형문화재 4분야, 기념물 12점, 문화재 자료 6점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시의 향토문화유산 19점이 지정되어 있다.

## ■ 국가 지정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현황도 번호
사적	57	남한산성	중부면 산성리 산 일원	1963. 1. 21	①
	31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중부, 송정(7개 읍면동)	1985. 11. 7	②
	480	남한산성행궁	중부면 산성리 935-6 외	2007. 6. 8	③
중요무형문화재	4	갓일(정춘모)	오포읍 양벌리	1991. 5. 1	④
	48	단청장(홍창원)	퇴촌면 영동리 60	2009. 2. 24	⑤

## ■ 경기도 지정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현황도 번호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815-1	1972. 5. 4	⑥
	2	송렬전	중부면 산성리 717	1972. 5. 4	⑦
	3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815-2	1972. 5. 4	⑧
	4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393	1972. 5. 4	⑨
	5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	1972. 5. 4	⑩
	6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391-1	1972. 5. 4	⑪
	88	유정리 좌불상	도척면 유정리 222-73	1979. 9. 3	⑫
무형문화재	201	광주 국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오포읍 양벌리 825	2006. 6. 19	⑬
	282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중부면 산성리 2-1	2014. 5. 9	⑭
	13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강석필)	곤지암읍 광여로 555-3	1994. 12. 24	⑮
	14	소목장(김의용)	곤지암읍 광여로 655-57	2002. 11. 25	⑯
	41	분청사기장(박상진)	탄벌길 166-8	2011. 6. 17	⑰
기념물	42	석장 조각(박찬봉)	곤지암읍 이내선길 174-31	2005. 2. 10	⑱
	21	맹사성선생묘	직동 산27	1974. 9. 26	⑲
	33	최향선생묘	퇴촌면 도마리 산11-1	1976. 8. 29	⑳

종별	지정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현황도 번호
기념물	90	허난설헌묘	초월읍 지월리 산29-5	1986. 5. 7	㉑
	95	신립장군묘역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1	1986. 5. 7	㉒
	98	김자수선생묘	오포읍 신현리 산120-1	1988. 3. 21	㉓
	105	김균선생묘	오포읍 능평리 산89-1	1988. 3. 21	㉔
	111	망월사지	중부면 산성리 14	1988. 12. 12	㉕
	119	개원사지	중부면 산성리 198-1·2·5	1989. 12. 29	㉖
	134	신의희생가	초월읍 서하리 160-1	1992. 12. 31	㉗
	145	신흠묘역 및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1994. 4. 20	㉘
	166	의안대군방석묘역	중부면 엄미리 산152	1998. 4. 13	㉙
	188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곤지암읍 삼리 11외 4필지	2003. 4. 16	㉚
문화재 자료	14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1983. 9. 19	㉛
	15	장경사(대웅전)	중부면 산성리 22-1	1983. 9. 19	㉜
	53	추곡리 백련암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25-1	1984. 9. 12	㉝
	63	곤지암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	1985. 6. 28	㉞
	159	우리절 5층석탑	도척면 상림리 178	2010. 12. 8	㉟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160	우리절 석조부도2기	도척면 상림리 178	2010. 12. 8	㉟
유형문화유산	1	정종묘	초월읍 대쌍령리 87-1	2008. 4. 21	㉑
	2	정뇌경 묘지석 및 함	장지동 675-2	2008. 4. 21	㉒
	3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김췌묘역 내 묘표·문인석	곤지암읍 삼합리 산50-1	2008. 12. 4	㉓
	4	이극증묘역 내 석물	초월읍 지월리 산37	2011. 7. 26	㉔
	5	이택재	중대동 197-2	2013. 10. 15	㉕
	1	송렬전 제향	중부면 산성리 717	2008. 4. 21	㉖
	2	현절사 제향	중부면 산성리 310-1	2008. 4. 21	㉗
	3	광주광지원원동악	중부면 광지원리 일대	2011. 7. 26	㉘
	1	산이리 지석묘	초월읍 산이리 236-1	2008. 4. 21	㉙
무형문화유산	2	백인대	곤지암읍 열미리 산174	2008. 4. 21	㉚
	3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2008. 4. 21	㉛
	4	신남성 동·서돈대	중부면 검복리 산99-6 외 5	2008. 4. 21	㉜
	5	남옹성 무인각석	중부면 산성리 산137	2008. 4. 21	㉝
	6	서흔남 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2008. 4. 21	㉞
	7	탁지부축량 소상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	2008. 4. 21	㉟
	8	여성제묘역 및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2011. 7. 26	㉟
	9	이 손 묘표 및 신도비	초월읍 신월리 산22-1	2011. 7. 26	㉟
	10	동래정씨 소평공파 종중 묘역 및 석물	장지동 산62, 산64-1	2013. 10. 15	㉟
	11	선동리 고분군	초월읍 선동리 302-21	2013. 10. 15	㉟

# 지정문화재 현황도



문화재(기능 보유자)	번호
남한산성	①
광주 조선백자 요지	②
남한산성 행궁	③
갓월정(정춘모)	④
단청장(홍창원)	⑤
수어장대	⑥
승렬전	⑦
청랑당	⑧
현질사	⑨
침괘정	⑩
연무관	⑪
유정리 좌불상	⑫
강희 21년명 석조지장보살좌상	⑬
남한산성 장경사 동종	⑭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강석필)	⑮
소목장(김의용)	⑯
사기장-분청사기(박상진)	⑰
석장-조각(박천봉)	⑱
맹사성선생묘	⑲
최향선생묘	⑳
하난설현묘	㉑
신립장군묘역	㉒
김자수선생묘	㉓
김균선생묘	㉔
망월사지	㉕
개원사지	㉖
신의회생가	㉗
신흠묘역 및 신도비	㉘
의안대군방석묘역	㉙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㉚
지수당	㉛
장경사	㉜
주곡리 백련암부도	㉖
곤지암	㉗
우리절 5층석탑	㉘
우리절 석조부도2기	㉙
정총묘	㉚
정뇌경 묘지석 및 함	㉛
광산김씨 직제한공파 김익사/김체묘역 내 묘표·문인석	㉜
이ук증묘역 내 석물	㉙
이택재	㉛
승렬전 제향	㉜
현질사 제향	㉙
광주광지원농악	㉙
산이리 자석묘	㉙
백인대	㉙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㉙
신남성 동·서돈대	㉙
남옹성 무인각석	㉙
서흔남 묘비	㉙
탁지부축량 소삼각점	㉙
여성제묘역 및 신도비	㉙
이 손 묘역 및 신도비	㉙
동래정씨 소평공파 종중 묘역 및 석물	㉙
선동리 고분군	㉙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Namhansanseong)

명칭 | 남한산성(南漢山城, Namhansanseong)

지정 번호 | 1439

지정일 | 2014. 6. 22 의결 / 2014. 6. 25 인증서

등록 구분 | 문화유산

등재 기준 | ❶ ❷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IV

시대 | 조선시대

국가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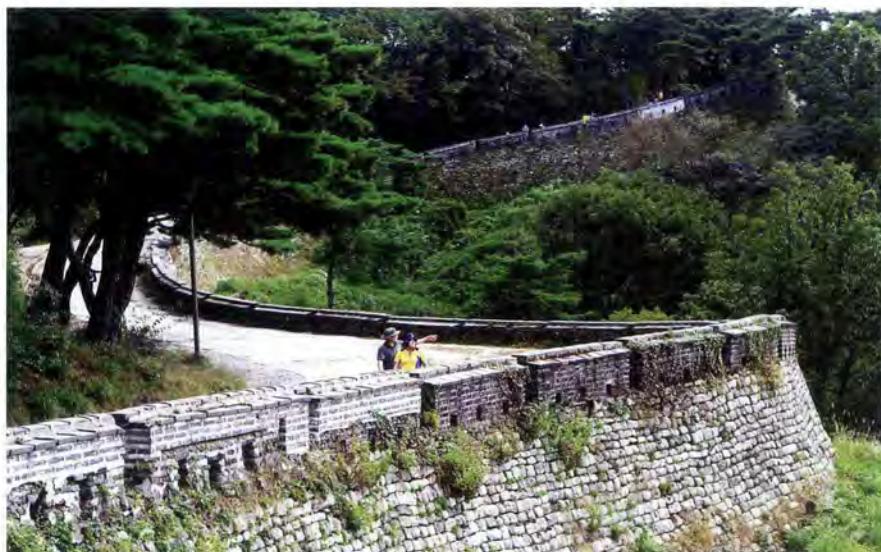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광주시 · 성남시 · 하남시 일원

좌표 | N 37° 28' 44", E 127° 10' 52"

면적 | 598,195m<sup>2</sup>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 1. 남한산성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산지에 축성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초기 유적에는 7세기의 것들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중국 청(淸)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성제(城制)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火器)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다.

## 남한산성 내(内) 지정 문화재

연번	지정 주체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지정일	문화재 보호구역
1	국가	사적	57	남한산성	1963. 1. 21	422,359
2	국가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2007. 6. 8	87,548
3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98	경기도 도당굿	1990. 10. 10	-
4	경기도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1972. 5. 4	8,160
5	경기도	유형문화재	2	승열전	1972. 5. 4	6,131
6	경기도	유형문화재	3	청량당	1972. 5. 4	218
7	경기도	유형문화재	4	현절사	1972. 5. 4	5,094
8	경기도	유형문화재	5	침괘정	1972. 5. 4	217
9	경기도	유형문화재	6	연무관	1972. 5. 4	6,463
10	경기도	무형문화재	13	남한산성소주 제조기술	1994. 12. 24	-
11	경기도	기념물	111	망월사지	1988. 12. 12	11,620
12	경기도	기념물	119	개원사지	1989. 12. 29	11,573
13	경기도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1983. 9. 19	6,410
14	경기도	문화재자료	15	장경사(대웅전)	1983. 9. 19	13,588
15	광주시	향토무형문화유산	1	승열전 제향	2008. 4. 21	-
16	광주시	향토무형문화유산	2	현절사제향	2008. 4. 21	-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배경 및 기준

### [완전성]

남한산성의 중요성과 다양성, 그리고 범위는 문화유산 구성의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남한산성은 분명하게 정의된 역사적 역할과 함께 산성의 구조, 옛 산성의 기능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충분하게 지니고 있다. 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지식, 즉 남한산성이 라는 산성이 지닌 방어적 군사 공학이라는 개념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역사와 지식은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

### [진정성]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소인 산성을 보수 및 개축할 때에는 산성의 형태·구조·자재 등에 있어 특별히 정밀한 과학적 지침을 따랐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새롭게 재축(再築)되고 있다. 이러한 재축 과정은 역사적으로 전해져오는 남한산성의 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산의 요소 중에서 특히 목재를 주로 하여 건축된 사찰이나 건축물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보호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진정성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복원 정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 덕분에 오래 전에 소실되었던 건축물들을 재축할 수 있었는데, 특히 19세기 일제 강점기 당시 전소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옛 터에는 당시의 모습을 지닌 행궁(行宮)을 복원할 수 있었다.

### [보존 및 관리 체계]

남한산성 성곽 및 기념물을 포괄하는 전체 권역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 총 218점에 달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 요소 각각은 유적 및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지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보호되



남한산성 송렬전에서 진행된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식(2014)

고 있다. 문화적 앙상블에 대한 기술 및 관광 관리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Namhansanseong Culture and Tourism Initiatives, NCTI)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 자체와 완충 지역은 경기도 도립공원(NPPO)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도립공원 측은 식생·녹지·기반시설(산책로·공원 지역 등) 등을 관리·관할한다.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 그리고 해당 지방 및 시도 자체에서는 유산 및 완충 지역의 보호·보존·관광 관리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 자원봉사단체가 유산의 관리 및 증진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 계획에는 부문별 계획, 특히 본 유산의 보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등재 기준]

※기준 (II) :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의 성제에서 유래했으나 이 성제를 조선의 자연 지세에 맞게 적용한 조선의 산성 도시의 표준이다. 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준 (IV) :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국가지정  
문 · 화 · 재



—  
광주  
문화재의  
향기를  
찾아서



## 사적

광주  
문화재의  
향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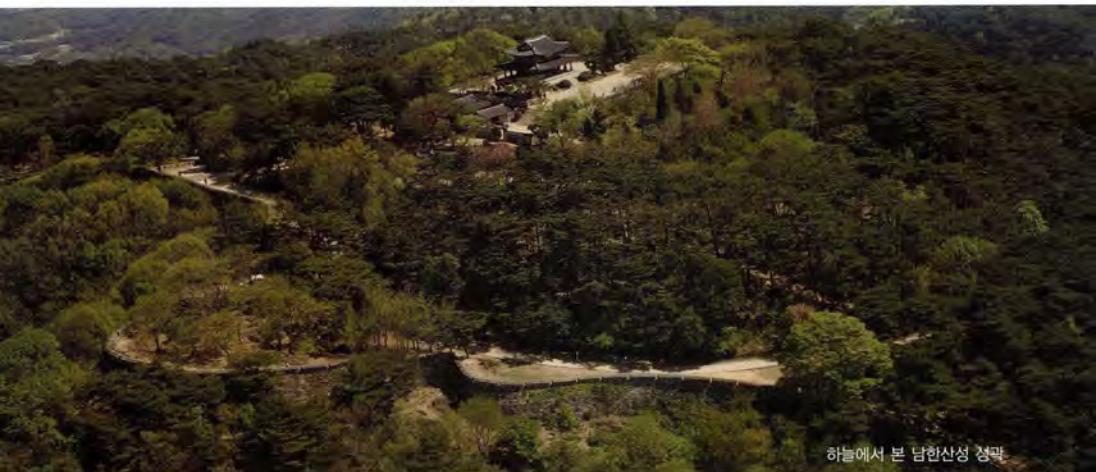
# 남한산성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산 일원

지정사명 | 사적 제57호(둘레 : 11.76km, 보호구역 면적 : 422,359m<sup>2</sup>)

산성 내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 :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이상 사적)

경기도지정 : 수어장대·연무관·승렬전·청량당·현절사·침래정(이상 유형 문화재), 지수당·장경사(이상 문화재자료), 망월사지·개원사지(이상 기념물)



하늘에서 본 남한산성 성곽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다. 행정 구역으로는 광주시·하남시·성남시에 걸쳐 있으며, 성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산성은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일대는 1971년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역사 유적은 지정 문화재 16개(국가 지정 2개, 도 지정 12개, 시 지정 2개)를 포함하여 200여 개가 분포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일찍부터 백제 온조왕대의 성으로 알려져 왔다. 673년(신라 문무왕 13)에는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晝長城, 일명 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로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믿어져 내려온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일장산성(日長山城)이란 명칭으로 둘레가 3,993보이고, 성내에는 군자고(軍資庫)가 있으며, 우물이 7개인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 안에 논과 밭이 124결(結)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1595년(선조 28)과 1621년(광해군 13)에 증축이 있었으나 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한 것은 후금(後金, 청나라)의 위협이 높아지고 '이 팔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부터이다. 인조는 강화도와 함께 조선 왕실의 보장처(保障處)로서 유사시 도성을 옮겨 항전할 수 있도록 성을 수축할 것을 총융사(摠戎使) 이서(李瑞)에게 명하였다. 2년 뒤에는 둘레 6,297보, 여장(女牆) 1,897개, 웅성(甕城) 3개, 성랑(城廊) 115개, 대문 4개, 암문(暗門) 16개, 우물 80개, 삼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읍의 치소(治所)를 산성 안으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승려 각성(覺性)을 도총섭(都總攝)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을 사역하였으며, 개원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하려던 인조가 청나라 군대에 길이 막히면서 다급하게 이곳으로 피신하여 항거하였으나 강화도가 함락되고 성 안의 양식도 부족해지면서 일명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항복을 한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비록 아픈 기억은 있으나 남한산성은 국방상 중요한 성으로서 수어정이 계속하여 주둔하였고, 1638년에는 미비점을 고려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산성 안에는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전국의 승군을 총괄하였으며, 승군 370여 명이 고종 때까지 산성을 지켰다. 각종 시설의 정비와 증설도 이루어졌다. 1686년(숙종 12) 봉암(蜂巖)에 성을 쌓았고, 1692년에 한봉(汗峰)의 좌우에 돈대(墩臺)를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으며, 1710년에도 남격대(南格臺)에 돈대를 쌓았다. 1731년(영조 7) 서장대(西將臺)와 한봉(汗峰)의 성첩(城堞)을 더 쌓았고, 1779년(정조 3) 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798년에는 한남루(漢南樓)를 세우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 1829년(순조 29)에는 1624년에 세운 객관 인화관(人和館)을 수리하였다.

산성으로 옮긴 광주부의 행정 관청으로는 좌승당(左勝堂) · 일장각(日長閣) · 수어청(守禦廳) · 제승현(制勝軒) 등의 시설이 있었고, 비장청(碑將廳) · 교련관청(敎練官廳) · 기배관청(旗牌官廳) 등의 군사 시설이 갖추어졌다. 또한 종각(鐘閣) · 마구(馬廄) · 뇌옥(牢獄) · 온조왕묘(溫祚王廟) · 성황단(城隍壇) · 여단(厲壇) 등 읍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고루 갖추어져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각종 시설을 완비한 곳으로 손꼽힌다. 1907년 일제에 의해 남한산성의 군사 시설 상당수가 파괴되었으며, 1963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호 차원의 복원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동 · 서 · 남쪽의 문루와 수어장대 · 돈대(墩臺) · 암문 · 우물 · 보(堡) · 누(壘) 등의 방어 시설과 관청 시설, 군사 훈련 시설, 남한산성행궁, 사찰, 사당 등의 시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남한산성도』(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 광주 조선 백자 요지

(廣州朝鮮白磁窯址)

지정일 | 1985년 11월 7일

소재지 | 조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송정동 등 7개 읍면동

지정사항 | 사적 제314호(보호구역 면적 : 407,660m<sup>2</sup>)



남종면을 비롯하여 광주시 일대는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조선 왕실의 백자를 굽던 가마가 있었으며,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약 130년 동안 285개가 번창하였다.

요지는 자기나 도기를 구워내던 가마터를 말한다. 광주시 일대에는 예전부터 도자기를 굽는데 필요한 질 좋은 흙이 나오고, 나무와 물이 풍부하였다. 게다가 제품의 공급지인 한양(서울)과 가깝고 한강을 이용한 운반이 편리해, 1752년(영조 28) 궁중 음식을 담당하던 사옹원의 분원(分院)이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왕실에서는 필요한 자기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옹원에서 왕실 자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를 운영토록 하였다. 사옹원은 왕실 소용 자기와 공납 자기 제작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광주에 자기 제작소인 분원을 두었던 것이다.

처음 고정 분원이 설치된 곳은 지금의 남종면 금사리였다. 그러나 강변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어 운반이 어려웠다. 결국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변, 지금의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켰다. 분원을 고정시킴으로써 10년마다 옮길 때 생기는 공사의 허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연료의 조달은 물론, 백토와 진상 자기의 운반이 수월해졌다.



분원의 주된 역할은 왕실용 자기를 굽는 어기번조(御器鉛造)이다. 번조된 자기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진상했는데, 봄에 구워 6월에 진상하는 것을 춘등진상(春等進上)이라고 했고, 가을에 구워 10월에 진상하는 것을 추등진상(秋等進上)이라 했다. 그 외에 1년 중에 통상 필요로 하는 수요를 진상하기 위한 번조를 예번(例鉛)이라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번조하는 것을 별번(別鉛)이라 하였다. 별번품은 주로 갑발(匣鉢)에 넣어 번조하였으며, 진상은 정례적인 봄과 가을 진상 때 함께 하였다. 진상 자기는 왕궁의 일반 생활 용기와 봉상시(奉常寺)의 제기(祭器), 내의원(內醫院)의 제약 용기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외국 사절 접대용 등으로도 공급되었다. 1년 동안 만들어낸 자기의 양은 매년 일정하지 않았으나, 1867년에 간행된 『유전조례』에 따르면 1,372죽(1竹=10개, 13,720개)의 자기가 봄과 가을에 진상되었다고 한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 공장(工厰)의 생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사경영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늘어나 18세기에 들어서는 상인 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으며, 19세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 1884년(고종 21)에는 상업 자본에 의해 민영화(民營化)로 바뀐 후 1910년부터 분원은 점차 쇠퇴하였다. 1920년 무렵에 가마가 폐쇄된 후 1923년 분원 가마에서 벼려진 자기 조각들로 이루어진 언덕에 분원 소학교(지금의 분원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분원은 역사 속에 잠들었으나 2001년에 첫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실체가 다시 드러났다.

분원리 백자는 특유의 맑은 청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장식이 없는 순백자는 물론, 다채로운 장식의 백자 사발 · 접시 · 잔과 같은 음식 용기를 비롯하여 병 · 항아리 · 등잔 · 배개와 같은 생활 용구와 제기(祭器), 각종 문방구류 등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문방구는 두꺼비 · 잉어 · 복숭아와 같은 동식물의 형태는 물론, 금강산 · 원통형 · 사각형 · 팔각형의 형태를 응용한 연적과 필통 · 필가(筆架) · 필세(筆洗)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운룡(雲龍) · 산수(山水) · 파초(芭蕉) · 화조(花鳥) · 사군자(四君子) 외에도 민화풍의 십장생(十長生) · 모란 · 칠보(七寶) · 박쥐 · 수복(壽福) 문자 등이 그릇 가득히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분원리 요지는 광주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분원리 요지를 비롯해 광주시 전역의 요지가 1985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향토 유적 지정은 자동 해제 되었다.

## 사적

광주  
문화재의  
향기를  
찾아서



# 남한산성행궁

(南漢山城行宮)

지정일 | 2007년 6월 8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지정사유 | 사적 제480호(보호구역 면적 : 87,548m<sup>2</sup>)

행궁이란 정궁(正宮)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왕이 궁궐을 벗어나 능행(陵幸)이나 피난(避難), 휴양(休養) 등의 목적으로 거동[舉動]할 때 머무는 곳을 말한다.

남한산성행궁은 비상시를 대비한 조정의 정무 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와 사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폐를 옮겨 봉안할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남한산성행궁 항공 전경



복원이 완료된 남한산성행궁

‘광주행궁(廣州行宮)’, ‘남한행궁(南漢行宮)’, ‘산성대궐(山城大闕)’이라고도 불리는 남한산성행궁은 1625년(인조 3) 6월 산성 축성 중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총융사 이서(李瑞)의 계책에 따라 조성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지휘한 인조가 기거하였다. 「남한지」의 “숙종과 영조, 정조가 영릉 참배 시 이곳에 머물렀고 유수의 아문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처음에는 역대 왕들이 실제로 머물렀으나 후에 광주 유수의 치소(治所)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행궁은 상궐(上闕), 하궐(下闕), 그리고 한남루(漢南樓)라는 누문을 기본 구조로 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연결된 행각을 갖추고 있다. 「문현비고」에 따르면 당시 행궁에는 내행전인 상궐과 좌우 부속 건물, 익랑 등 72간 반, 상궐의 삼문 바깥에 외행전인 하궐과 응청문(應淸門), 내삼문 등 154간이 있었다고 한다. 행전의 동편에는 객사인 인화관(人和館)이 있었으며, 전체 규모는 325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 광주부 읍치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좌승당(坐勝堂) · 일장각(日長閣) 등의 관영 건물이 있었고, 기타 재덕당 · 유차산루 · 이위정(以威亭) · 이명정(以明亭) · 원대정(緩帶亭) · 우희정(又喜亭) · 옥천정(玉泉亭) 등이 있었다. 행궁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남한지」 · 「여지도서」 · 「광주부읍지」 등 문현마다 각 건물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규모 또한 일정치 않다. 이것은 인조 때부터 순조 때에 이르기까지 각 건축물들이 필요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어 빈터가 되었으나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1997년 5월 27일 경기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행궁의 복원이 추진되면서 1999년부터 행궁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상궐과 하궐, 좌전이 복원되었으며,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되었다.

## 중요무형문화재

광주  
문화재의  
향기를  
찾아서



# 갓일

지정일 | 1991년 5월 1일 소재지 | 오포읍 양벌리

지정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기능보유자 | 정춘모

분야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 갓의 유래

우리나라 갓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평안남도 용강군 화상리의 고구려 합신총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서민들이 소립(素笠)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갓’ 이란 명칭은 고려 말 공민왕 때 관모(冠帽)를 제정한데서 비롯됐으며, 조선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의 하나로 원래는 햇볕이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모자였으나 주로 양반의 사회적인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두룡포(지금의 통영시)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설치되면서 만들기 시작한 통영갓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400년 이상 그 전통이 이어져왔으며, 통영12공방의 하나이기도 하다.

## 갓의 종류

선비들이 외출 때 착용했던 검정색의 흑립(黑笠)이 대표적인 입자(笠子)이며 통칭 갓이라 한다. 재료에 따라 진사립, 음양사립, 음양립, 마미립, 저모립, 죽저모립 등이 있다.

**진사립(眞絲笠)** 대나무를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한 대오리로 만든 최상품으로 왕이나 귀인들이 착용하였다.

**음양사립(陰陽絲笠)** 모자 부분은 말총을 엮어서 만들고 테두리인 양태는 대오리에 옻칠을 하여 만든 것이다.

**음양립(陰陽笠)** 음양사립보다 한 단계 품질이 낮은 것이다.

**마미립(馬尾笠)** 말의 꼬리털인 말총으로 만든 것이다.

**저모립(猪毛笠)** 돼지의 털로 만든 것이다.

**죽저모립(竹猪毛笠)** 돼지털과 대오리를 혼합해 만든 것이다.



## 갓 만들기

갓의 제작 공정은 크게 양태, 총모자, 입자의 단계로 나뉜다. 이를 세분화하면 양태 24단계, 총모자 17단계, 갓을 완성하는 입자 10단계 등 무려 51단계를 거쳐야 한다.

01

**양태** 갓의 차양을 만드는 작업. 대나무를 삶아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쪼갠 후 4가닥의 올로 레코드판처럼 얹어 만든다.



02

**총모자** 머리에 씌우는 대우 부분을 만드는 작업. 말총이나 말의 갈기 등을 이용해 만든다.



03

**입자** 총모자와 양태를 합치는 작업. 명주를 입히고 옻칠을 해서 제품을 완성한다.



## 갓의 달인, 입자장 정춘모



입자장 정춘모는 경상북도 예천 출생으로 1960년경 대구에서 유학 중에 하숙집에서 갓 일을 처음 접했다. 이때 선생이 만난 분들은 양태장 모만환, 총모자장 고재구, 입자장 김봉주 등으로 갓일의 최고 장인들로서 무형문화재였다. 당시 갓일은 사양 산업이었으며, 제대로 된 갓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명을 바쳐야 했으므로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정춘모는 민족의 자존심을 염두에 두고 1970년에 그분들의 제자로 입문하여 기술을 모두 전수받았다.

1973년 제1회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입상하였고, 이듬해인 1974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등록, 1982년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1991년에 갓일(입자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갓일은 3단계 각 공정마다 별도의 장인이 있어 분업으로 작업을 했으나 현재는 입자장 정춘모 혼자서 하고 있다. 자칫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난이도 높은 작업의 특성상 전수자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갓의 최고봉인 진사립의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도의 세밀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며 정춘모 이외에는 재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생은 현재 서울시 삼성동에 소재한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갓일 공방에서 전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갓의 달인, 입자장 정춘모

광주  
문화재의  
향기를  
찾아서



# 단청장(丹青匠)

기원일 | 2009년 2월 24일 | 지정일 | 퇴촌면 영동리 60

지정서번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관보번호 | 충청원

주체 | 한국단청연구소

## 단청의 유래

단청(丹青)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건물 등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궁궐이나 사찰, 서원, 향교 등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색깔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나타내며, 반복되는 문양은 화재와 잡귀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단청은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목적 외에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표면 도장에도 유용하여 예전부터 건축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단청은 삼국시대의 고분 등에서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불교가 수용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단청 문화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유행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과거에는 돌이나 흙에서 채취한 것을 아교에 희석해서 만든 천연 안료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어 대부분 화학 안료를 사용한다. 광주시 퇴촌면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 선생이 만든 한국단청연구소가 있어 단청 연구는 물론 제자를 양성하면서 장엄하고 화려한 단청의 전통을 잊고 있다.

## 단청의 종류

건물의 외관을 화려하게 하고 표면 도장의 역할도 하는 단청에는 방식이나 단계에 따라 가칠단청, 긁기 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얼금단청, 금모로단청, 고색단청, 고색땀단청 등이 있다.

**가칠단청** 문양이나 긁기를 생략하고 바탕칠만 하는 것. 뇌록가칠, 석간주가칠, 미색가칠, 고색가칠 등이 있다.

**금기단청** 바탕색 도채(塗彩) 후 멀선과 분선으로 일정한 두께의 수평 또는 부채 형태대로 1.4cm 넓이 정도 이상의 선 긁기를 한 후 부연, 연목 마구리 및 화반, 악공 등 초각을 한 곳에 문양을 넣는 단청이다.

**모로단청** '모루단청', 또는 '머리단청'이라고도 한다. 건축 부재 약 1/3정도의 길이로 출초하여 문양을 넣는 것 이 대체적인 수법이다.

**금(錦)단청** 최고 등급의 장엄 양식이다. 명칭에 비단 '금(錦)' 자를 붙인 이유는, 마치 비단에 수를 놓듯이 복잡한 문양과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하고 금문(錦文)을 추가로 장식하기 때문이다.

**얼금단청** 금단청과 모로단청의 중간 형식. 금단청 문양을 얼기설기 넣는다.

**금모로단청** 금단청과 모로단청 문양을 접종하여 그린 단청이다.

**고색단청** 신축 건물이나 보수 건물 전체에 퇴색된 색을 만들어 칠하는 것이다.

**고색땀단청** 건물 보수 후 새로 교체한 부재에 옛 부재의 문양과 색상에 맞춰 칠하는 것이다.

## 단청하기

01

**출초(도본 만들기)** 단청할 부재에 면적과 모양  
이 같은 초지를 만든 다음, 묵탄 또는 연필로 초안  
을 만든다.



02

**천조** 초안된 초지의 그림(선)을 따라 바늘로 촘촘히 구멍을 낸다.



03

**바탕 닦기** 단청할 부분의 흙먼지 등을 제거한다.



04

**포수** 아교를 넣고 물게 끓인 물을 바탕에 비른다.  
포수는 안료의 틸락을 막아주어 단청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05

**기칠** 연목 사이의 개판인 연골에 백색 기칠을 하  
지만 금단청의 경우 토육색을, 타조 할 부재와 녹색  
바탕으로 남는 곳에는 청록색 기칠을 한다.



06

**타분(타조)** 녹색 바탕칠이 된 부재에 천조된 도  
본(초지)을 대고 분 주머니를 두드리면 바늘구멍을  
통해 나온 가루가 바탕에 문양을 만든다.



07

**오색 입히기** 본에 따라 청·적·황·백·흑의 다  
섯 가지 색을 입힌다. 이때 칠은 각기 맡은 색만 찾  
아 그려 칸을 메운다.



## 단청의 달인, 단청장 홍창원

단청장 홍창원은 1970년 15세 때 당시 단청장이던 만봉 스님의 제자로 단청에 입문하여 40년 이상 외길을 걷고 있다. 1981년 7월에 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1986년에 단청 이수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2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되었다.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 등의 궁궐은 물론, 지난 2008년에 방화로 소실돼 2013년 5월에 복원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의 단청을 책임지기도 했다. 선생은 그 밖에도 국내 유명 사찰과 일본의 쇼오고 무량수사,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의 단청을 도맡아 진행했다. 현재는 1990년에 광주시 토촌면 영동리에 개소한 한국단청연구소에서 전수 활동은 물론 천연 안료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지정

문화재



—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수어장대

지침일 | 1972년 5월 4일 소재지 | 충부면 산성리 815-1  
지정사명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보호구역 면적 : 8,160m<sup>2</sup>)



하늘에서 본 수어장대 전경

수어장대(守禦將臺)는 남한산성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장대(將臺)로, 성 내부와 성남시는 물론 인근의 서울·용인·양평·양주·고양·인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지에 세워졌다. 장대란 장수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臺)이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든 4개의 장대 중 하나로 처음에는 1층 누각으로 짓고 서장대라 불렸으며, 1751년(영조 27) 영조의 명을 받고 이기진(李箕鎮)이 서장대 위에 2층 누각을 지었다. 건물의 2층 바깥쪽 앞면에는 '수어장대'라는 현판이,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무망루'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청나라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죽은 효종의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의 13만 대군과 대항하여 인조가 친히 군사들을 지휘, 격려하며 40여 일간을 항전했던 곳이다.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남한산성에 주둔한 수어청 소속의 우영장(右營將)



將)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효종의 능인 여주 영릉(寧陵)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한산성에 들렀던 영조와 정조는 이 장대에 올라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새겼다고 전한다.

건물은 1836년에 유수 박기수 (朴岐壽)가 고쳐 세운 것으로 날개를 편 것 같은 2익공계(二翼

工系) 양식의 2층 구조이다. 1층은 앞면 5칸 옆면 3칸이고, 2층은 앞면 3칸 옆면 2칸이다. 1층의 사방 1칸은 복도로 비워두고 정면 3칸과 측면 2칸만 장마루를 깔고 사방에 높이 45cm의 난간을 둘렀다. 2층 4면의 바깥 기둥은 1층의 기둥이 그대로 연장되어 4면의 가장자리 기둥이 되었는데, 비례가 급격히 줄어든 감이 있다. 2층은 1층 우측 뒤편에 있는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층의 각 칸에는 태극무늬가 그려진 두 짝의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천정은 연등천정이고,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 서장대 매바위



인조 때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 공사를 맡았던 이회(李晦) 장군에 얹힌 이야기이다. 이회는 축성을 명받고 밤낮을 일심전력하였으나 워낙에 산세가 험하고 자금은 부족한데다가 꼼꼼하여 진척이 더뎠다. 반면, 서북쪽을 맡은 벽암대사는 기일 안에 공사를 마쳤음은 물론 남은 금액을 반납까지 하자 조정에서는 이회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회가 사리사욕을 탐하고 주색에 빠져 공사를 게을리 한다.'는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 서장대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회는 “신이 죽기는 합니다만 신이 죽은 뒤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목이 잘리는 순간 그의 목에서 한 마리의 매가 날아 나와서 시신 주위를 돌고 장대 근처의 바위에 앉아 군중을 쳐다보다가 그 자취를 감추었다. 군중들이 기이하다 여겨 매가 앉았던 바위에 가 보니 그 자리에는 매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훗날 조정에서 남한산성 성역(城役)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 보니 벽암이 맡은 서북쪽은 허술했지만 이회가 맡은 동남쪽은 견고하기가 금성철벽(金城鐵壁)이었다. 이를 알게 된 조정에서는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서장대 옆에 사당을 짓고 ‘청량당’이라 지었으며, 사람들은 매가 앉았던 서장대 앞의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승렬전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충부면 산성리 717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보호구역 면적 : 6,131m<sup>2</sup>)



승렬전(崇烈殿)은 1638년(인조 16)에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원래 이름은 ‘온조왕사(溫祚王祠)’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광주 판관 이시원(李始源)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조가 ‘승렬(崇烈)’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편액은 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였고, 현판을 거는 날에는 수신(守臣)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는데, 제문(祭文)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

때 병사한 이서(李曙) 장군의 위패를 훗날 배향(配享)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건물은 2단 석축 위에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꾸몄고, 지세가 협소하여 외삼문을 옆에 두었다. 1888년(고종 25)에는 건물의 중앙과 서까래가 썩어서 개수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렸으나 현재는 가을에만 제향을 올리고 있다. 예전에는 제향 때 예조에서 향축(香祝)을 보내왔으며, 전감(殿監) 2인과 수복(守僕) 2인이 있었다.



승렬전 현판



승렬전 외삼문



승렬전 흥실문



# 청량당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2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보호구역 면적 : 218㎡)

청량당(淸涼堂)은 남한산성 축성에 공을 세운 이회(李晦) 장군과 그의 처첩(妻妾), 그리고 벽암대사(碧巖大師)를 함께 모신 사당이다. 이회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 공사를 담당하였으나 축성 경비를 탕진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한 모략을 받고 무참히 사형을 당하였다. 그의 처첩도 남편의 성 쌓는 일을 돋기 위해 삼남지



벽암대사 초상화



이회 장군 초상화



방(三南地方)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였다. 훗날 이회가 맡은 공사를 재조사해보니 성이 견고하고 충실하게 축조되어 있어 그의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서장대인 수어장대 옆에 사당을 지어 그와 두 부인의 넋을 달래게 하였다.

벽암대사는 법명이 각성(覺性)으로 남한산성 축성 때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 서북쪽의 축성 공사를 담당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전국에 격문을 띠워 승군을 조직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다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돌아간 후 1660년(현종 1)에 입적하였으며, 훗날 청량당에 배향되었다.

청량당은 '맑고 시원하다'는 뜻으로 사당이 위치한 산봉우리의 명칭에서 유래했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앞면에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좌우 양쪽에는 벽암대사와 이회 처첩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 것은 한국전쟁 때 분실되었고 지금 있는 것은 그 후 새로 만든 것이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현절사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310-1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보호구역 면적 : 5,094m<sup>2</sup>)



현절사(顯節祠)는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청(淸)나라에 끌려가 갖은 고통을 치른 끝에 참형을 당한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를 모신 사당이다. 훗날 삼학사와 함께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현(金尙憲)과 정온(鄭蘊)을 추가 배향하였다.

1688년(숙종 14)에 숙종은 삼학사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광주유수 이세백에게 명하여 남한산성 동문 안쪽에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이어 1693년에는 '현절사' 라 이름을 지어 현관을 내렸다. 또 1700년에는 김상현과 정온을 함께 배향하면서 현 장소로 옮겨지었다. 1749년(영조 25) 현절사의 제향을 위해 전결과 노비를 나누어 주었으며, 1871년(고종 8)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 때에도 제외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규모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앞면은 제사지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퇴칸으로 개방하였고, 옆면은 바람막이 풍판을 달고 방화벽으로 마감하였다. 전사청과 재실을 갖추고 있다.



현절사 현판



현절사 사당



현절사 숙종어제



# 침괘정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591-1

지정시행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보호구역 면적 : 217m<sup>2</sup>)

침괘정(枕戈亭)은 남한산성 안 산성 마을 동쪽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남한산성을 축조한 이서가 축성에 착수하였을 때 수풀 속에서 이 건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몇 백 년이 되었는지 건립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주초가 견고하고, 방의 온돌이 상하지 않았으며, 건물 중간 방 하나의 온돌 높이가 수직에 달했다고 한다. 시험 삼아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니 윗목부터 시작해 차차 아래목까지 더워졌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 하지만 이를 고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침과(枕戈)’란 침과침갑(枕戈寢甲) 또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뜻이다. 즉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착용한 채 누워 결전의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무기를 갖춰 항상 전쟁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 고심(苦心)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戈)’는 ‘과’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는 ‘침과정’이 옳지만 침괘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침괘정의 오른편에는 과거에 군기고(軍器庫)가 있어 명나라의 사신 부총병(副總兵) 정룡(程龍)이 ‘총용무고(總戎武庫)’라 이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무기고나 무기 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 일기』 정조 3년 8월 9일 기사에 의하면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포환(砲丸)이 남한행궁에까지 떨어지자 인조가 침괘정으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751년(영조 27)에 광주유수 이기진이 중수하고 침괘정이라 명명한 것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3칸이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체 건물의 평면 중 5칸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 정면 2칸 측면 3칸에 마루방이 있으며, 그 반대편으로 약 5자(尺) 폭으로 퇴칸을 둘러놓았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연무관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391-1  
지정사유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보호구역 면적 : 6,463m<sup>2</sup>)

연무관은(演武館)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연무당으로 부르던 것을 숙종 때 수어사 김재호(金在好)로 하여금 개수(改修)하게 하고 '연병관(練兵館)'이라 쓴 현판을 하사하여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정조 때는 이를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으나 그 뒤에도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1779년(정조 3) 남한산성에 행차한 정조는 이곳에서 광주부의 유생과 무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과거시험을 치르고, 장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배포하였다. 최근에는 남한산성문화재 행사 때 광주시를 중심으로 성 남시와 하남시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치르고 있다.

건물은 앞면 5간 옆면 4간 규모로,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바닥은 널빤지를 '정(坪)'자처럼 짠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반자가 꾸며지지 않은 연등천장이다. 기둥은 둑근기둥으로 맨 윗부분은 소 혀처럼 생긴 장식인 쇠서가 하나 뱀은 초의공계(初翼工系) 형식으로 짜여있다. 뒷면 벽은 널판으로 되어 있고 좌우의 벽에는 판문이 3개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은 벽이나 문짝 없이 개방되어 있는데 원래는 설치된 흔적이 있으나 중간에 여러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듯하다.





# 유정리 좌불상

지정일 | 1979년 9월 3일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222-3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보호구역 면적 : 665m<sup>2</sup>)

유정리 좌불상(柳井里坐佛像)은 높이 약 2.1m의 석불 좌상으로 앞에는 돌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어 불상의 다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나 분(粉)을 너무 많이 발라 세부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없다. 몸에 비해 유난히 큰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뿔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둥근 머리묶음이 있다. 귀는 크고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고, 목에는 삼도(三



道)가 표현되었다. 이 불상은 체구에 비해서 머리가 유난히 큰 불균형한 신체 비례, 좁은 어깨, 작은 손, 형식적인 옷 주름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에는 굽고 완만한 'U'자형 주름이 있다. 양 손은 배에 모아 왼쪽 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양손의 엄지를 맞댄 선정인(禪定印)을 표현하였다. 무릎 역시 상체에 비해 위나 작아서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는 편이다. 또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선정인의 손은 빈약하고 팔의 양감도 보잘 것 없으며 옷 주름도 세련되지 못하여 도식적인 솜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큼직한 얼굴에 보이는 온화한 분위기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면모가 엿보인다. 한편, 유정리 마을 주민들은 좌불상을 아들 낳게 해주는 미륵님으로 여기며, 이 미륵님 덕분에 사고가 없다고 믿는다.



#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지정일 | 2006년 6월 19일 | 소재지 | 오포읍 양벌리 825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극락사(極樂寺)는 오포읍 백마산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창건 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다. 석조지장보살좌상(石造地藏菩薩坐像)은 극락사 대웅전 주존불상의 오른쪽에 별도로 마련된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쪼아 만든 불상으로 높이는 49.1cm이고 어깨 폭은 20.2cm이며 밑바닥 면에 직경 15cm의 둥근 구멍이 있다.

다. 이 구멍은 얼굴 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 뚫려 있어 원래는 복장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복장물은 금동이나 목조, 소조불상에서 많은 예가 발견되지만 석조 불상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복장물을 넣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결가부좌한 채 손을 앞으로 모은 선정인의 모습이며, 민머리의 모습에서 지장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뺨강고 등근 보주를 손에 올려놓았다. 이 보살상은 크고 동그란 얼굴에 어깨가 좁고 허리가 짧은 편이지만 무릎이 넓어 안정적인 자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의 변형 법의를 걸치고 속에는 편삼을 입은 모습이며, 법의의 단이 살짝 반전하면서 흘러내려오거나 가슴 아래 수평으로 처리된 상의와 띠 매듭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양 다리 사이에 세모꼴로 흘러내린 치맛자락의 표현도 눈에 띈다.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지장보살로는 양손을 마주잡은 선정인

의 수인(手印)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석조 불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복장공이 있다. 불상 양식도 16~17세기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지정일 | 2014년 5월 9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22-1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2호

남한산성 장경사 동종은 조선 17세기의 대표적인 승장(僧匠) 사인(思印)이 제작한 통도사(通度寺) 종루 종의 시작품(試作品)이라 생각될 정도로 크기와 하대 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구조 및 표현이 일치한다. 또한 사인파(思印派)가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달문 동종(만의사 동종)과도 하대의 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의 표현 수법 등이 거의 같은 모양이다.

장경사 동종의 형태는 한 마리의 용이 그 꼬리로 음통을 휘감고 올라가는 모양의 종뉴(鍾紐?) 아래에 풍만감이 있는 종신이 연결된 모양이다. 종신의 외형선은 어깨 부위부터 벌어지며 내려오다 종의 중간부터는 살짝 오므라든 선형(線形)을 그리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종을 매다는 부분인 종뉴인데, 음통의 상단 가장 바깥 부분의 꽂잎은 활짝 벌어져있고, 내부의 꽂잎은 안으로 오므라든 만개한 연화가 장식되어 있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승장계 장인이 제작한 동종에서 나타난다.

종신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범종 양식대로 상대와 하대, 4개의 유곽이 제 위치에 있으며, 유곽과 유곽사이에는 4구의 보살상을, 종복에는 주성 내용을 알려주는 명문을 배치하였다. 종복에는 종의 주성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장경사 종루와 동종

내력을 알려주는  
양각 명문이 둘러  
쳐 있고, 끝부분  
에 점각으로 인명  
을 새겨놓았다.



#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登録일 | 1994년 12월 24일 | 소재지 | 곤지암읍 광여로 555-3  
지정사정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 기능보유자 | 강석필 | 선수조교 | 강환구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라서 '남한산성소주'란 이름이 붙었다. '광주산성선주', '광주산성소주'라고도 한다. 술을 빚기 시작한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성한 인조 때부터로 추정되며, 왕실에 진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술의 재료는 남한산의 맑은 물과 광주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 그리고 재래종 통밀로 만든 누룩과 재래식 엿 등이다.

술을 빚을 때 반드시 재래식 조청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하여

술의 맛과 향을 내는데, 다른 토속주에서는 찾기 힘든 특징이다. 이렇게 빚은 술은 죽엽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벌꿀에서 느낄 수 있는 그윽한 향취를 자아낸다.

맛과 향취가 뛰어나 한때 전국에 이름을 떨쳤던 산성소주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에 성 안의 시설과 행정기관을 지금의 경안동 일대로 이전하고, 「주세법」의 제정으로 가정에서의 술 제조가 전면 금지되면서 단절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다행히 산성소주를 만들어 팔던 이종숙 씨의 공장에서 일을 봄 주던 강석필의 아버지가 그 비법을 전수받았고, 이를 어린 시절에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웠던 강석필이 기억을 더듬어 수차례의 실험 끝에 남한산성소주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강석필의 노력으로 남한산성소주의 전통은 살아났고,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강석필의 전통주 제조 기능은 그의 셋째 아들 강환구에게 이어지고 있다. 강환구는 '2009 한국전통주 품평회'에 참살이탁주를 출품하여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환구는 전수조교로서 전통을 잇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으로 널리 소개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주의 우수함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단막 위기의 전통을 되살린 강석필

강석필은 1937년생으로 어려서 어깨너머로 술 빚는 것을 배운 후에는 40대 중반까지 숯장사와 엿 공장



운영 등 다른 일을 했으며, 술은 취미삼아 틈틈이 빚곤 했다. 그러던 중 1983년부터 전통주를 만들기 시작해 19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통주 빚기에 몰두했다. 1993년에는 남한산성소주의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이듬해인 1994년 12월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했다.

## 남한산성소주 만들기

남한산성소주는 누룩 디디기, 고두밥 짓기와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발효, 술 거르기, 소주 내리기 등 여섯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01

**누룩 디디기** 엿기름가루에서 효소를 추출하고, 그 물에 쌀가루를 넣어 끓여 조청을 만든다. 이 조청에 통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고 벗짚 속에 넣어 발효시켜 누룩을 띄운다.



누룩 디디기

02

**고두밥 짓기와 밑술 빚기** 고두밥(고들밥)을 지어 누룩과 조청, 물을 넣고 술독에 담아 밀봉하여 발효시키면 밑술을 얻을 수 있다.



고두밥 짓기와 밑술 빚기

03

**덧술 빚기** 밑술을 빚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되 밑술도 함께 넣어 발효시키는 것이다.



발효

04

**발효** 잘 버무린 덧술을 깨끗이 씻은 후 술독에 담아 앉히고 밀봉하여 열을 정도 발효시키면 산성 약주가 익는다.



소주내리기

05

**술 거르기** 소주를 내리기 위해서 익은 술을 찌꺼기와 분리하는 것이다. 이때 맑게 걸려내면 청주가 되고, 탁하게 걸려내면 탁주가 된다.

06

**소주 내리기** 걸려낸 술을 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로 증류하는 과정이다. 이때 전통 방식인 소주 고리를 이용하여 술을 내린다.



# 소목장

지정일 | 2002년 11월 25일 소재지 | 곤지암읍 광여로 655-57

지점사항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 보유자 | 김의용 전수조교 | 김희준



소목장은 장릉을 비롯하여 문방제구 등의 세간과 각종 목물(木物), 즉 가마·수레·농기구·창호·목도구 등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소목장이란 명칭은 고려 때부터 나타나는데 조각장, 나전장 등과 더불어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과 진보를 관리하던 중상서(中尚署)에 속해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목장이라 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수레장·선장·통장·표통장·마조장·풍물장·안자장·목소장·목영장을 따로 두었다.

## 목물 만들기

목물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 적당한 나무를 고르는 일이다. 나무의 종류와 무늬, 크기, 마름 정도 등 목물의 성격과 용도에 맞는 나무를 골라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무에 들이는 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목재를 구해서 무늬가 잘 살아나도록 제재한 뒤 7~8년간 자연 건조를 시키고, 그렇게 진을 뺀 나무는 한 달 여 를을 때서 다시 건조시킨다.

목재를 골랐으면 목물에 맞게 나무를 잘라내고 표면을 평坦하게 깎는 대패질을 한다. 이어 칼을 사용하여 목재에 밑그림을 그리고 '장부 파기'와 '장부 촉 따기'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 조립하고, 문·창틀·서랍 등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목물의 각 부분을 맞추면 칠을 하지 않은 백골(白骨) 상태의 목물이 완성된다.

# 01

**나무 고르기** 나무의 종류와 무늬, 크기, 마른 정도 등 목물의 성격과 용도에 맞는 나무를 고른다.



# 02

**먹금 넣기와 장부 파기** 칼을 사용하여 목재에 밑그림을 그리고 뭇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 나무 한쪽에 흠(구멍)을 판다.



# 03

**장부 측 따기** 장부 파기로 흠을 낸 곳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나무에 측(돌출 부분)을 만든다.



# 04

**조립 하기** 장부 파기로 흠을 판 곳과 장부 측 따기로 깍은 측을 서로 맞물리게 한다.



# 05

**목물 맞추기** 문, 창틀, 서랍 등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목물의 각 부분을 맞추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비로소 칠을 하지 않은 백골상대의 목물이 완성된다.



## 정교함의 장인, 김의용

김의용은 1967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15세의 나이에 고(故) 민종태(나전칠기장)로부터 17년을 사사 받으며 목공예의 길에 입문하였다. 이후 손대현 공방을 거쳐 2001년에 상록공방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미술 치료 겸임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목물의 기본이랄 수 있는 백골 부문의 맥을 잊는 소목장 기능 보유자로 철저한 장인(匠人) 정신으로 전통 가구의 맥을 잊고 있다.

백골의 우수성은 뭇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통 목가구의 짜맞춤 기법으로 새털만큼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장인의 정교함에서 비롯된다. 나무와 나무를 45도로 맞추는 사케 맞춤 등 각종 맞춤 기술은 연결 부분이 조금만 어긋나도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김의용은 나무를 자를 때만 기계를 사용할 뿐 흠을 파거나 다듬는 등 대부분은 옛날 방식의 수작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사기장(분청사기)

지정일 | 2011년 6월 17일 | 소재지 | 탄벌길 166-8

지정사원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 기능 보유자 | 박상진

## 분청사기의 유래

분청사기는 회색이나 회혹색 태토(胎土) 위에 백토니(白土泥)를 분장한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자기로 상감청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특징은 청자나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기법(粉粧技法), 그리고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때로는 대담하게 생략, 변형시켜 재구성한 무늬라 할 수 있다.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세종 연간을 전후하여 그릇의 질이나 형태 및 무늬의 종류, 무늬를 넣는 기법 등이 크게 발전하여 절정을 이루었다. 광주시에도 그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 있는데, 현재 알려진 가마터는 퇴촌면의 도수리와 관음리, 중부면의 번천리와 오전리, 남종면의 삼성리, 초월읍의 쌍동리와 학동리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15세기 후반부터는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官窯)가 운영되면서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급은 사옹원(司饔院) 광주분원(廣州分院)에서 맡으면서 분청사기는 주로 민간용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분청사기의 종류는 분장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에 따라 상감(象嵌)기법, 인화(印畫)기법, 박지(剝地)기법, 조화(造花)기법, 철화(鐵畫)기법, 귀얄기법, 덤벙기법 등 7가지로 분류한다. 광주 분청사기의 특징은 조선 초기에 상감기법 중에서 선상감과 인화문이 주로 보이며, 타 지역에서 조선 후기에 보이는 덤벙기법이 간혹 발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 분청사기 만들기

분청사기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일반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점토 만들기 → 성형하기 → 건조하기 → 초벌구이 → 그림 그리기 → 유약 바르기 → 재벌구이 단계를 거쳐 완성되며, 분청사기로서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바로 무늬를 넣는 기법에 있다.

01

**성형** 점토를 이용해 도자기의 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빚어서 만들기, 말아 올리기, 흙 판으로 만들기, 조각 본으로 만들기, 돌림판으로 만들기 등이 있다.



02

**굽깎기(굽갈이)** 성형을 하고 반쯤 건조시킨 후 칼로 깎는 작업이다. 예전에는 '굽갈이 한다'는 말을 썼으나 현재는 '굽 깎는다'고 한다.



03

**조각(그림 그리기)** 조각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조각(그림)을 하는 것이다.



04

**화장토(백토, 자토) 바르기와 굽기** 도자기 전체 또는 부분에 화장토(주로 백토)를 칠하여 무늬를 만들고 필요 없는 부분을 굽어내어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 미래를 꿈꾸는 사기장, 박상진

박상진은 14세 때인 1971년에 '고려도요' (현 지순택요) 지순택으로부터 3년간 사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 이어 1974년에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인 박부원의 '도원요'에 입문하여 약 13년 동안 분청사기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1987년에 독립하여 '개천요'를 설립한 후 자신만의 분청사기를 만들고 있다. 그는 분청사기가 갖는 자유로움을 중시하여 옛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를 재현하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현재여야 하고, 그것 역시 더욱 발전시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자기의 바탕은 사람의 마음으로, 또 도자기의 모양은 사람의 육체로, 그리고 도자기의 문양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여기며 흙을 만지고 있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석장(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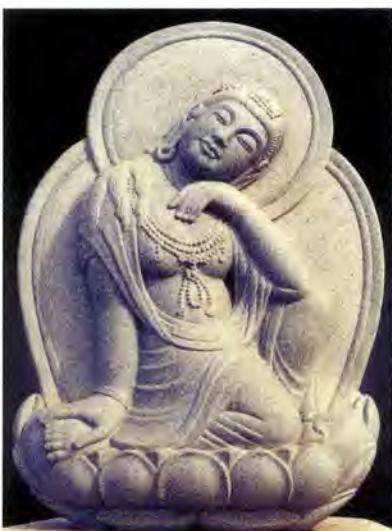
지정일 | 2005년 2월 10일 | 소재지 | 곤지암읍 내선길 174-31

지정사유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기능 보유자 | 박찬봉 | 전수초교 | 김영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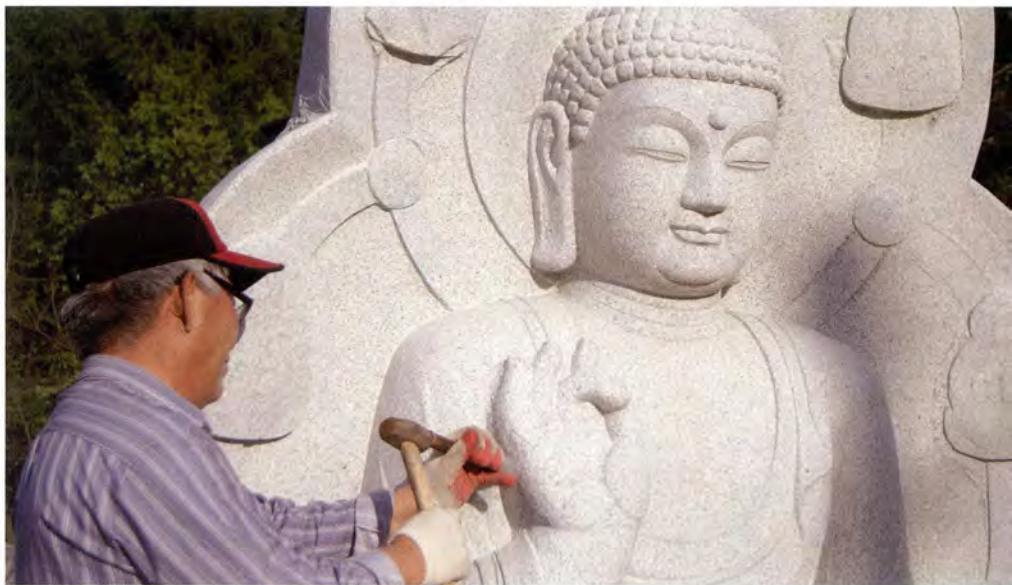
## 석조물과 석장

돌은 나무와 함께 인류의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재료로 구석기시대부터 각종 기구로 가공되었다. 또한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표현의 대상이 되어 거석(巨石) 문화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석조 미술품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질 좋은 화강암이 많아 일찍부터 일용 잡기는 물론 건축물, 불교 미술품, 분묘 석물 등 넓은 분야에서 돌을 이용하였다.



‘석장(石匠)’ 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한다. 사찰이나 궁궐, 묘역 등에 남아있는 불상과 석탑, 석물 등이 석장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 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석장 분야별로는 ‘조각’ 부문과 ‘공예’ 부문이 있으며, 박찬봉은 조각 부문이다. 주재료는 화강암이 이용되며 그밖에도 납석과 청석, 대리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석장들은 망치나 정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수준 높은 석조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계가 도입되면서 전통 석조물 제작 기법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석조물 제작의 전통 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석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 돌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장인, 박찬봉

박찬봉은 석조 불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사리탑 등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1972년에 근대 불상 조각의 계보를 잇는 권정환의 제자가 되어 불교 미술품 제작에 발을 디뎠다. 1987년에 문화재청 석조각공 기능자 제939호로 등록되었으며, 2005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0년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 입상(30m)을 비롯하여 강원도 동해시 사문선원 석조좌상(6.2m), 경기도 포천시 법왕사 석조좌상(4.5m), 경상북도 양산시 통도사 옥련암·문수보살·보현보살 등 수많은 작품이 있다.





# 맹사성선생 묘

지정일 | 1974년 9월 26일 소재지 | 직동 산27

지정사유 | 경기도 기념물 제21호(보호구역 면적 : 4,272m<sup>2</sup>)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명재상이다.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조선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관(本貫)은 신창(新昌), 자(字)는 자명(自明), 호(號)는 고불(古佛),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

어려서 효성이 지극하여 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7일간 단식하고, 3년간 죽을 먹으면서 묘 앞에서 상을 치러 고향에 효

자문(孝子門)이 세워졌다.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조선 개국 후 대사헌을 거쳐 세종 때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평소 청렴결백하여 공(公)과 사(私)를 엄히 구별하여 청백리로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태종실록』을 감수하고 『팔도지리지』를 찬술하였으며, 음률과 향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제작하는 등 황희와 함께 세종을 잘 보필하여 조선 초기의 사회 안정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맹사성선생 묘의 봉분은 흙무덤으로 직사각형의 호석을 둘렀다. 봉분 앞의 화관석 묘표는 조선 초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 네모 받침 위에 비신을 세운 방부하엽(方趺荷葉) 양식으로, 전면에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集賢殿經筵春秋館事 兼判吏曹事 世子傅 贈謚文貞孟公之墓 라 하여 맹사성이 역임한 여러 관직과 시호를 적고, 후면에 皇明正統三年戊午十二月日立石 이라 하여 건립 시기를 적었다. 좌우 한 쌍의 문인석은 관을 쓰고 관복을 입은 모습인 복두공복(幞頭公服) 양식으로 훌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하였다. 높이는 127cm 규모로 세종대의 다른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작다.

원래는 묘표와 향로석, 문인석만 남아 있었으나 후손들이 1959년 상석과 원쪽의 향로석, 봉분 오른쪽에 묘비를 새로 갖추었고, 1968년에는 망주석(望柱石)과 동자상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 상석(床石)과 장명 등을 갖추었다. 묘의 오른쪽 구릉에는 부인 철원최씨의 묘가 있으며, 입구 쪽에 맹사성이 타고다니던 검은 소의 무덤이 있다.



맹사성선생 묘 망주석



맹사성선생 묘 동자석



맹사성선생 묘 문인석



맹사성선생 묘 갈



맹사성이 타던 검은 소의 무덤



예전의 상석, 향로석, 고석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최항선생 묘

지정일 | 1976년 8월 29일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산11-1  
지정사유 |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보호구역 면적 : 3,733m<sup>2</sup>)



최항(崔恒, 1409~1474)은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이자 대학자로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다. 본관은 삭령(朔寧), 자(字)는 정부(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童梁),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시(謁聖試)에 장원급제하여 1443

년 집현전 학사가 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용비어천가』를 주해(註解)하였으며,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을 편찬하였고,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다. 1453년(단종 원년)에 승지로 있으면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이 되고, 도승지에 올랐다가 곧 이조참판이 되었다. 1455년(세조 원년)에 좌의공신(左翼功臣) 2등이 되고 형조와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463년(세조 9)에 『동국통감』을 찬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466년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469년(예종 원년)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 하였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 관료로서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고, 역사와 어학에 조예(造詣)가 깊었으며, 문장을 잘 지어 명(明)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많이 지었다. 저서로는 『태허정집』과 『관음현상기』가 있다.



최항 선생 추모 제향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 홀무덤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에는 봉분과 묘비 2기, 가운데는 문인석과 근래 건립된 상석·향로석·장명등 등을 갖추었고, 맨 아래 왼쪽에는 신도비 2기를 세웠다. 봉분 오른쪽의 묘표는 네모 받침 위에 비신을 세운 방부하엽 양식으로 앞면에는 4행의 글을 적어 죄항의 묘소임을 밝혔고, 뒷면에는 1474년(성종 5)에

세운 내대를 기록하였다. 봉분 왼쪽의 묘비와 가운데의 상석은 선생의 17대손이 1600년대에 세운 것이다. 2m가 넘는 문인석은 관을 쓰고 관복을 입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신도비 2기 중 본래의 것은 상단의 연봉이 망실됐고 신도비 전체가 검게 산화되었다. '文靖公墓碑' 라 기록한 전액만 확인될 뿐, 마모가 심하여 비문의 판독은 불가능한 상태이나 1479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거정이 비문을 짓고, 성임이 글씨를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금석문』을 참고하여 같은 형태로 만든 새로운 신도비가 나란히 있다.



최향선생 묘 봉분



최향선생 묘 문인석



최향선생 묘 신도비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허난설현 묘

지정일 | 1986년 5월 7일 | 소재지 | 초월읍 자월리 신29-5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0호(보호구역 면적 : 8,337m<sup>2</sup>)



허난설현(許蘄雪軒軒, 1563~1589)은 비운의 천재 시인으로 신사임당과 함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이다. 본명은 허초희(許楚姪), 본관(本貫)은 양천(陽川), 자(字)는 경번(景樊), 호(號)는 난설현(蘭雪軒)이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났으며, 8세 때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梁文)」을 지어 신동으로 불렸다. 15세에 김

성립과 결혼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친정집에 옥사(獄事)가 있는 등 연속되는 불운에서 오는 고뇌를 시를 쓰며 달래다가 1589년(선조 22)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그녀는 섬세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상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는데, 본인의 유언에 따라 불살라지고 허균에 의해 복원되거나 발견된 213수가 전해진다. 작품의 일부는 허균이 명(明)나라의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어 중국에서 『난설현집(蘭雪軒集)』이 간행됨으로써 격찬을 받았고, 1711년(숙종 37)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야 지로[文台屋次郎]에 의해 간행되어 널리 애송되었다.

허난설현의 묘는 초월읍 자월리에 소재한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의 광주재실인 모선재 옆에 있다. 원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옛 석물은 문인석만 있는데, 관모와 관복을 입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허리에 두르는 야자대(也字帶)를 조각하였다. 높이는 150cm 정도로 1600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묘비·장명 등·상석·망주석·돌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승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詩碑)가 서 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현이 딸과 아들을 앓은 슬픔을 노래한 「곡자(哭子)」시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허난설현 묘 봉분 좌측 전면에 나란히 있다. 남편 김성립의 묘는 허난설현 묘소 위쪽에 조성되어 있다.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난설현시비」



하난설현 묘 망주석과 문인석



하난설현 아이들 묘



「난설현집」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신립장군 묘역

지정일 | 1986년 5월 7일 | 소재지 |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1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5호(보호구역 면적 : 8,813m<sup>2</sup>)



신립(申砬, 1546~1592)은 조선 선조 때의 무장으로, 북방에서 여진족 니탕개를 격퇴하고 계속되는 침입을 막아낸 용장이지만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에서 패하여 자결하였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이다.

선조가 즉위한 해인 1567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6) 니탕개를 격퇴한 후 계속되는 여진족의 침입으로부터 6진을 지켜낸 공로로

1584년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590년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전라·경상의 3도 순변사로 임명되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하였으나 싸움에서 크게 패하자 남한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훗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주최씨와의 단분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두루 갖춰져 있다. 봉분 왼쪽에는 네모난 받침의 기대(基臺)에 비신(碑身)을 놓고 그 위에 지붕돌을 얹은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대리석으로 된 묘갈이 있다. 지붕돌은 팔작지붕 형태로 지붕 부분에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용마루 양쪽 끝에 용구를 설치한 평산신씨 묘갈의 특징을 보여준다. 기대의 측면에는 당초문(唐草紋)이, 상부 모서리에는 연화문(蓮花紋)이 장식되었다. 규모는 높이 224cm, 비신 높이 162cm, 너비 47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신의상이 글씨를 써서 1703년(숙종 29)에 세운 것이다. 문인석은 관모와 관복을 갖춘 금관조복 양식으로 둔중한 인상을 주며, 높이 158cm정도이다. 봉분 앞 높이 116cm의 동자석은 총각을 표현하였고, 높이 159cm 규모의 망주석이 있다.



신립장군 묘 문인석



신립장군 묘 동자석



신립장군 묘 망주석



신립장군 묘 묘갈



신립장군 묘 이수



신립장군 묘 상석



# 김자수선생 묘

지정일 | 1988년 3월 21일 소재지 | 오포읍 신현리 산120-1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8호(보호구역 면적 : 6,168m<sup>2</sup>)

김자수(金自粹, 1350~1413)는 고려가 망하자 이를 비관하여 자결한 고려의 충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이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려 우왕(禡王) 초에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는데, 왜구 토벌의 공으로 포상 받은 조민수(崔敏修)의 사은 편지에 회답하는 교서를 지으라는 왕명을 거절하여 전라도 돌산에 유배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충청도관찰사·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太宗)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여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김자수선생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상하쌍분이다. 봉분 앞에 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위치하고 있다. 묘역 좌우로는 석양(石羊)을 배설하였으며, 옛 석물로는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이 있다. 상석 좌우에 세워진 문인석은 높이 80cm로 작은 크기이며 고졸(古拙)한 느낌이다. 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묘역 앞쪽의 문인석은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금관조복(金冠朝服)의 형태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묘비는 그의 유언에 따라 세우지 않았다가 조선 효종 대에 이르러 7대손 김적(金續)의 발의에 따라 신도비를 마련하였으나 생전에 남긴 훈계가 지엄하였기에 묘 아래쪽에 묻어두었던 것을 1926년에 후손들이 발굴하였다. 그러나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신도비를 새로 건립하였고, 옛 신도비는 그 옆에 눕혀놓은 채 난간석을 둘러서 관리하고 있다. 옛 신도비는 1926년 건립된 신도비의 초기에 의하면 1654년 채유후(蔡裕後)가 비문을 짓고, 8대손 김홍옥(金弘郁)이 글씨를 썼으며, 여이정(呂爾徵)이 전액을 올렸다고 한다.



묘 한쪽에 눕혀 놓은 김자수 옛 신도비



새로 건립한 김자수 신도비



김자수 순절비각



김자수선생 묘 옛 문인석



김자수선생 묘 문인석



# 김균선생 묘

지정일 | 1988년 3월 21일 | 소재지 | 오포읍 능평리 산89-1  
지정시정 | 경기도 기념물 제105호(보호구역 면적 : 4,151m<sup>2</sup>)



계림군에 봉해졌다. 벼슬은 보국승록대부로서 좌찬성에 이르렀다.

김균선생 묘역은 곡장으로 둘러져 있고, 전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분은 상하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문인석 2쌍과 망주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고,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표는 네모난 반침에 비신의 머리가 약간 둥근 방부원수(方趺圓首) 형으로 전면에 '朝鮮開國功臣鷄林君金公樞之墓' 라 묘주를 밝히고, 후면에는 17세손인 김홍집(1842~1896)이 입석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문인석 2쌍은 모두 관모와 관복을 갖춘 복두공복 양식으로 16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주석은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19세기 전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묘소의 석물 중 상석 · 향로석 · 장명등 · 석양(石羊) 등은 근래에 새로이 조성한 것이다.

묘역의 전방 약 80m 지점에는 1905년에 건립한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신도비문은 송병선(宋秉璽)이 짓고,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한(金炳漢)이 전액(篆額)을 올렸다. 비문에 의하면, 김균의 묘역은 실전(失傳)되었다가 후손 김사목(金思穆)이 광주유수(廣州留守)로 부임하여 수소문한 끝에 찾아 정비하였다고 한다.

김균(金樞, 1341~1398)은 여말선조의 문신으로 조선의 개국공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시호는 제숙(齋肅)이다. 1360년 (공민왕 9) 성균사에 합격 하였으며 공양왕 때에 전법판서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를 추대한 공로로 개국공신 3등



# 망월사지

지정일 | 1988년 12월 12일 소재지 | 충부면 산성리 14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보호구역 면적 : 11,620m<sup>2</sup>)

망월사(望月寺)는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창건되었으나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의해 산성 내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사찰도 함께 소실되어 오랜 기간 그 터만 남아 있었다. 현재의 사찰은 1990년에 복원한 것이며, 복원 이전인 1988년에 절터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예부터 망월암이 있었던 곳으로 남한산성 안에 있는 9개의 사찰 중 가장 오래된 고찰이었다. 고려 때 장의사(壯義寺)란 사찰이 있었는데 태조가 도성을 세울 때 이를 허물고 그곳의 불상과 『금자 화엄경(金字華嚴經)』 일부, 금정(金鼎) 1구를 이곳으로 옮겨 두었다고 한다. 1682년(현종 8) 승통정첩(僧通政帖) 150장과 가선첩(嘉善帖) 50장을 발급하여 문루(門樓)를 개축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망월사 대웅보전과 13층 적멸보궁탑



망월사 원경



망월사 극락보전

망월사는 남한산성의 동문(東門)에서 북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약 250m 가량 올라가 장경사(長慶寺)와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200m 정도 산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좁은 길을 따라 산의 중턱  
이상 올라가면 갑자기 넓은 계곡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망월사지이다. 산지(山地)에 경사를 이용하여 절  
을 지었으므로 곳곳에 쌓아 놓은 축대가 남아 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현재의 법당이 있는 곳이 원래 본당(本堂)이 있던 자리이고 그 주위의 부속 건물들이  
있던 자리는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립 당시의 것으로는 법당의 축대,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용된 장대석(長臺石), 그리고 주춧돌(초석) 몇 개뿐이며, 대웅전, 극락보전, 13층 적멸  
보궁탑, 요사채가 다시 들어섰다. 입구에 감로수 우물이 있으며, 비구니 수도원을 겸한 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망월사 극락보전 내부 법당



# 개원사지

지정일 | 1989년 12월 29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98-1  
지정사유 | 경기도 기념물 제119호(보호구역 면적 : 11,573㎡)

개원사(開元寺)는 남한산성역사관에서 남서쪽으로 3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僧徒)들을 총지휘하는 본영 사찰(本營寺刹)로 창건되었다. 남한산성 내에는 원래 있었던 망월사(望月寺)와 옥정사(玉井寺) 외에 7개의 절이 더 창건되었는데, 개원사는 본영



사찰로서 조선 승병의 총지휘소가 되었고, 나머지 8개 사찰은 각 도의 승병(僧兵)이 주둔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종묘의 위판과 원종의 영정(靈輡) 등을 법당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그 후 1894년(고종 31) 의승방번(義僧防番)이 폐지될 때까지 270여 년 간 승총(僧總)이 주재하는 사찰로서 전국 사원들의 승풍(僧風)을 규찰하는 규정소(糾正所)가 설치되는 등 명실상부한 조선 불교의 총본산 역할도 담당하였다.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1637년 서호(西湖)에 닿은 배에 사람은 없고 대장경 책함만이 들었는데, 함 위에 '中原開元寺開刊(중원개원사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조는 "사람이 배를 이끈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왔으니, 이는 영묘하고 괴상한 일이다. 이 책이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 사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을 찾아서 길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개원사란 이름을 가졌던 이 절에 대장경을 금란보(金闌襍) 열 별에 싸서 봉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1666년(현종 7) 사찰 내의 화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갑자기 반대편에서 바람이 일어 불을 껐다고 하며, 1694년(숙종 20)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저절로 껐기 때문에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의해 산성 내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법당·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대장경도 전소되었고, 곧 폐사되고 말았다. 그 후 작은 건물 1동이 남아 있었으나, 1976년 선효화상(禪曉和尚)이 주지로 부임하여 신도들과 함께 10여 년에 걸쳐 대각전(大覺殿)·요사(寮舍) 등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금씩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군기고지(軍器庫址), 누각지(樓閣址), 종각지(鐘閣址) 등에는 주춧돌, 틀계단, 박석(薄石) 등이 남아 있어 옛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게 한다. 또한 사찰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산성 수호 승군들이 사용했던 놋쇠항아리 1점과 석장(石杖)·옹기(甕器)·함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신익희생가

지정일 | 1992년 12월 31일 | 소재지 | 초월읍 서하리 160-1

지정사유 |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보호구역 면적 : 2,136m<sup>2</sup>)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로서 제헌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1894~1956)의 생가이다. 원래는 지금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었으나, 1865년(고종 2)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1867년경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전한다. 건축물 대장에는 1925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전쟁 때 폭격에 의해 바깥채

가 파손되었던 것을 개축하였으며, 2002년 원인 모를 화재로 안채가 전소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조 기와집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L'자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안방 뒤로 2칸을 달아내었다. 중앙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2칸 반의 안방, 좌측으로 건넌방 1칸을 두었고, 안방 앞으로 상부에 다락이 있는 2칸 반의 부엌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퇴칸을 이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바깥채는 'L'자형으로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방 1칸, 좌측에 방 2칸과 마루 1칸을 두어 사랑채로 이용하였으며, 마루 뒤로 벽감이 있는 1칸 반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 7칸 규모의 부속채가 바깥채 우측에 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경기 지역 중소 지주 계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둥의 일부 부재를 제외하면 부재가 가늘고 치목 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20세기 초에 크게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에는 목판, 서적, 화살, 인쇄기 등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뒤쪽의 뜰에는 해공의 친필 글씨를 새긴 비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석을 모아둔 비석군이 있다.





# 신흠묘역 및 신도비

지정일 | 1994년 4월 20일 소재지 | 퇴촌면 영동리 산12-1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45호(보호구역 면적 : 29,097m<sup>2</sup>)

신흠(申欽, 1566~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재상이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현(玄軒) · 상촌(象村) · 현옹(玄翁) · 방옹(放翁),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85년(선조 18) 진사시(進士試)와 생원시(生員試)에 차례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송강(松江) 경철(鏡澈)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여 지평으로 승진되고, 이어 사성 · 대사간 · 부제학 ·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는 한성부판윤 ·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인조 때에 예문관 · 홍문관의 대제학과 우의정 ·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한문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으면서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임하였다. 또한 대명 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 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文運)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단분합장묘이다. 묘역은 사성(沙城)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 앞에는 묘비 · 상석 · 향로석이 가까이 모여 있다. 상석 전방에는 장명등이 있으며,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1628년(인조 6)에 건립된 것으로 후면에는 그가 손수 작성한 비문이 새겨 있다. 1699년(숙종 25)에 건립된 신도비는 거북 받침에 반원형의 용 문양 지붕을 올린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으로 묘역의 동남쪽 약 200m 지점 묘역 입구에 세워졌다. 총높이가 335cm로 매우 크며,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 감각과 세부적으로 생동감 있는 조각 표현 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 의안대군방석묘역

지정일 | 1998년 4월 13일 | 소재지 | 중부면 엄미리 산152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보호구역 면적 : 3,301m<sup>2</sup>)

의안대군(宜安大君)은 조선 태조의 제8남이며, 선덕왕후 강씨 소생으로 이름은 이방석(李芳碩)이다. 아버지의 공훈으로 어린 나이에 고려 왕조에서 군기녹사(軍器錄事)의 일을 맡았다. 1392년(태조 1) 세자로 책봉되었고, 1398년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 이복형들에 의하여 유배된 후 제5왕자인 이방원의 명을 받은 이숙번에게 피살되었다. 1406년(태종 6) 오원소

도공(五原昭悼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1437년(세종 19) 6월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를 후사로 정하였으며, 그해 11월 사우(祠宇)가 건립되었다. 1680년(숙종 6) 7월 영춘추관사 김수향(金壽向) 등의 상언에 따라 의안대군으로 추봉되었다.

묘역은 용마산과 장작산 사이의 '애기능'이라고 부르는 산 능선에 정남향(正南向)으로 위치한다. 의안대군 묘와 세자빈 심씨의 묘가 상하로 있으며, 뒤쪽으로는 산신제단이 있다. 묘역은 고려시대 묘제의 특징을 지닌 조선 초기의 것으로 돌담이 있고, 각각의 봉분은 직사각 모양의 호석이 둘러져 있어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세자빈 심씨의 묘 앞에 상석과 문인석 2쌍 등 석물을 배설하였다. 각 봉분 앞에 세운 묘비 2기는 모두 방부하엽 양식으로 묘주(墓主)를 새겼다. 문인석 2쌍은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복두공복 양식으로 훌을 잡은 손은 보이지 않고, 의습선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1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과 상석 받침은 후대에 개수한 것으로 상석(床石)을 원래보다 높이 받치게 되었지만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의안대군 방석 묘 문인석

##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지정일 | 2003년 4월 16일 소재지 | 곤지암읍 삼리 11 외 4필지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88호(보호구역 면적 : 147,103m<sup>2</sup>)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廣州三里舊石器遺蹟)은 2001년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유적은 노곡천과 곤지암천이 서로 합류하는 서쪽 부분에 위치하며, 수원(水源)이 풍부하여 사철 메마르지 않은 물줄기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구석기인들의 삶에 알맞은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삼리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은 약 4,000점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의 구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발굴 모습

삼리 구석기 유적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쌓인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의 토양층을 기반으로 한다. 조사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토양층 밑으로는 강물의 영향을 받아 쌓인 자갈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고토양층 안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3개의 문화층이 밝혀졌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제3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에 속하고, 그 위에 있는 제2문화층과 제1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3문화층에서 제1문화층에 걸쳐 찍개 또는 여러면석기 등 크고 무거운 석기가 고르게 나타나지만, 제1문화층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3개 문화층에서 발굴된 잔손질된 석기 중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것이 굵개와 흄날 종류이며, 제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대형 밀개가 출토되어 관심을 끈다. 3개 문화층에서 석기 제작에 이용

된 석재의 대부분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유적 주변의 곤지암천이나 노곡천에서 쉽게 발견된다. 삼리 구석기 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석재는 제1문화층에서 드러난 흑요석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제5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가늘고 길쭉한 흑요석 돌날(좀돌날)이 다양으로 발굴되었다. 특히 흑요석으로 만든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 등도 발굴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출토 흑요석 유물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지수당

제정일 | 1983년 9월 19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24-1  
지정사유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보호구역 면적 : 6,410m<sup>2</sup>)



지수당(池水堂)은 1672년(현종 13)에 광주 부윤 이세화(李世華, 1630~1701)가 연못가에 지은 정자이다. 지수(池水)라는 이름은 '땅속의 물은 병중(兵衆)이다. 노성(老成)한 사람이라야 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정조실록』에 의하면 1779년(정조 3) 정조가 여주 영릉을 다녀오는 길에 남한산성에 들러 이곳에 올랐다고 한다.

지수당은 앞면 3칸, 옆면 3칸의 통칸 구조 건물로 훌치마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장대석을 한 켜만 놓아 만든 외벌대의 기단 위에 사각형의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방주(方柱)를 기둥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칸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하부에 널빤지인 머름을 둔 평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일종의 누정(樓亭)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의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으나 하나는 매몰되어 지금은 두 개의 연못만 남아 있다. 연못 가운데에 '관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빙 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 옆의 연못은 'ㄷ' 형으로 파서 연못이 정자를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다. 정자의 동쪽에 이세화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으며, 제3의 연못지로 추정되는 곳은 논으로 이용 중이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장경사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소재지 | 충부면 산성리 22-1

지정사유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전통사찰 제42호(보호구역 면적 : 13,588m<sup>2</sup>)

장경사(長慶寺)는 남한산성 동문 안에서 동북쪽 350m 거리에 있는데, 산성 내 여러 사찰 가운데 경치가 가장 수려한 곳이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僧軍)의 수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 옥정사(玉井寺) 외에 개원사(開元寺), 한흥사(漢興寺), 국청사(國清寺), 천주사(天柱寺), 동림사(東林寺), 남단사(南壇寺) 등이 새로 세워졌다. 이때 각성대사(覺性大師)를 8도도총섭절 제중군주장(八道都總攝節制中軍主將)에 임명하여 각도의 승군을 동원케 하고 이들을 감독하며 보살피게 하였다.

산성 축성 후에도 장경사에 승군을 주둔시키고 항시 수성(守城)에 필요한 훈련을 계속하게 하였다. 남한 산성의 수비와 관련하여 장경사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신지(信址) 용성(靈城)의 수어(守禦)를 담당하였으며, 포루와 암문 등이 장경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1704년(숙종 30)에는 원성과 용성을 용도(甬道)로 연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망월사, 천주사와 함께 남한산성 3대 사찰이었다.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의해 산성 내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다른 사찰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장경사는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하였다. 대웅전은 조선 후기 다포계(多包系)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된 건물이며 부속 건물로 진남루, 칠성각, 대방, 요사채 3동이 있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추곡리 백련암부도

지정일 | 1984년 9월 12일 |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산14(산25-1)

지정사유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전통사찰 제89호(보호구역 면적 : 2,210m<sup>2</sup>)



추곡리 백련암부도(楸谷里白蓮庵浮屠)는 태화산 중턱에 위치한 백련암 요사채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석종형(石鐘形) 부도이다. 한쪽 변이 1.5m인 사각형의 바닥돌 위에 원형의 낮은 받침대를 마련하여 종 모양의 탑신(塔身)을 세웠다.

바닥돌의 각 면에는 직사각형의 액(額)을 구성한 후 전면에는 풀꽃무늬 초화문(草花文)을, 측면에는 안상(眼象)을 얹게 새겼다. 그 위의 받침대에는 연꽃무늬를 두르고 있으며, 이와 달아 있는 탑신의 아래에도 대칭되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여 장식하

였다. 부도의 상단에는 구슬 모양을 연이어 붙여 한 바퀴를 두른 대 위에 밥그릇을 뒤집어엎은 모양의 복발(覆鉢)과 보주(寶珠)를 얹었다.

백련암 부도의 주인공이나 조성 시기는 사적기나 다른 명문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백련암이 1325년(충숙왕 12)에 창건되었다는 「백련암내력」의 기록을 인정하면, 대략 여말선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문화재의  
발자취를  
찾아서



# 곤지암

지정일 | 1985년 6월 28일 소재지 |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2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3호(보호구역 면적 : 323㎡)

곤지암(昆池岩)은 화강암으로 된 두 개의 바위다.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바위는 높이 3.6m에 폭이 5.9m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m 크기다. 곤지암에는 선조 때의 명장인 신립(申砬, 1546~1592) 장군에 얹힌 전설이 전해진다.

신립은 왜군을 물리치라는 명을 받고 김여물(金汝勿)과 함께 훈련도 안 된 병사들을 이끌고 충주로 향했다. 그는 조령(鳥嶺)을 포기하고 달천(達川)에 배수진을 친 후 고니시 유끼나가(小西行長)가 지휘하는 왜군과 싸우다 참패를 당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몇몇 살아남은 병사들이 물에서 신립 장군을 건졌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병사들이 장군의 시체를 수습해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는데, 묘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의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를 지나갈 때 누구든 말을 타고 지나가려고 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떤 선비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편찬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바위를 내리쳐 웃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옆에 큰 연못이 생겼다. 그 후로는 말을 타고 다니는 행인의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며, 이 바위를 ‘곤지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바위의 주변에는 연못이 있어서 소하천과 연결되었으나 현재는 복개되어 학교와 주택가로 변하였다. 바위 위쪽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증명하듯 약 400년 된 향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 우리절 5층석탑

지정일 | 2010년 12월 8일 |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 178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9호(보호구역 면적 : 2m<sup>2</sup>)



우리절 5층석탑은 도척면 상림리의 고급 주택단지를 지나 산자락 밑에 있는 우리절 경내의 석탑이다. 우리절은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이자 고려필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의 말사로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다. 도척면의 우리절은 근래 창건된 사찰이다.

석탑은 1998년 5월경에 신도가 기증한 것으로 원래 봉안되었던 사찰을 밟힐 수 있는 문현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다만 각 부분의 조각 수법이 섬세하며, 총높이가 315cm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려시대 전기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석탑의 받침인 아래 기단부는 2개의 장대석 (139×168cm)을 연결하였고, 그 위로 4개의 판석을 맞대었다. 탑신(塔身)은 5층으로, 사각의 탑신석마다 귀기둥을 모각(模刻) 하였고, 2층 이상의 탑신은 1층 탑신의 높이에 비해 급격히 줄어 절반 정도의 비례를 보여주

고 있다. 3~4층 지붕돌과, 4~5층 탑신 및 지붕 장식은 새로 만들어진 부재들이다. 지붕돌은 올라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며, 낙수면(落水面)은 급한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끝 부분이 약간 반전되고, 아래에는 각 층마다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정상부는 둑근 받침을 대고 밥그릇을 엎어 놓은 듯한 복발을 얹었다. 2010년 12월 8일에 우리절 석조부도 2기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 우리절 석조부도2기

지정일 | 2010년 12월 8일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 178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보호구역 면적 : 2㎡)

우리절 석조부도2기는 도척면 상림리 우리절 요사 뒤편에 위치한 부도로 각각 송계당과 낙화당이라는 당호(堂號)가 음각되어 있다. 사찰 측에 의하면 송계당부도는 5층석탑과 함께 신자로부터 기증받았고, 낙화당부도는 관음전이 있는 지역에 흘어져 있던 부재를 발견하여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절 주변에는 불당골, 절골, 승방터 등의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70여 년 전까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송계당부도는 지붕돌과 원구형 탑신부, 반침돌인 기단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부의 하대석은 두

줄의 연꽃문양(양련)이 조각되어 있고(二重伏蓮), 그 위의 중대석은 팔각 면의 상대와 하대에 모서리마다 연주문 기둥을 세웠으며, 상대석은 세 줄로 볼륨이 있는 양련(仰蓮)을 새기어 장식하였다. 계란형의 탑신(塔身) 정면에 위패의 모양을 양각하고 세로로 '松溪堂(송계당)'이라는 당호를 새겼다. 지붕돌인 옥 개석은 1석으로 마치 목조 건축물의 맞배지붕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낙수면이 급하면서 아무런 문양도 새겨져 있지 않다. 이 부도의 주인공 송계당은 조선시대 스님의 당호 중에 흔한 이름이라 법명이 적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

낙화당부도는 지붕돌과 원구형 탑신부, 기단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부는 육각형의 하대석에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그 위에 다른 부재로 추정되는 육각의 기다란 중대석을 세웠으며, 상대석에는 큼지막한 연꽃문양의 양련을 조식하였다. 중대석에 세로 방향으로 '樂華堂大師勝信(낙화당대사승신)'이라는 당호가 새겨져 있다. 지붕돌은 목조 건축물의 측면을 번안한 전각형으로, 하부에 반침대를 표현하고 모서리에는 추녀와 서까래를 조각하였다. 낙수면에 기와등이 표현되고, 합각부에는 높은 내림마루가 있으며 마루 끝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다.



낙화당부도(좌)와 송계당부도(우)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정충묘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초월읍 대쌍령리 326-1

지정사항 |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제1호



정충묘 사당

정충묘(精忠廟)는 1636년 병자호란 쌍령 전투에서 전사한 경상좌도 병마사 허완(許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閔英), 허완의 중군이었던 안동 영장 선세강(宣世綱), 그리고 근왕병을 이끌고 죽주산성 까지 올라왔던 공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 등의 위폐를 모신 사당이다.

2단으로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한 후 기단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입구에는 홍

살문 1기를 세웠으며, 사당까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앞면 1칸, 옆면 1칸 반의 통칸으로 사각형 주춧돌에 사각 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를 결구한 납도리집이다. 겹쳐마에 팔작지붕 양식이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였다. 건물 정면은 좌우에 벽을 세우고, 가운데에 4짝 분합문을 달았으며, 나머지 3면은 붉은 벽돌로 화방벽을 쌓았다. 내부 바닥은 널빤지를 깔아 플로어링 처리를 하였으며, 천장은 평반자를 설치하고 격자로 나눠 연학문과 격자 틀에 단청하였다. 편액은 '精忠廟' 라 좌에서 우로 썼고, 1959년에 쓴 정충묘명이 걸려 있다. 정충묘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삽망에 봉심하고, 제 장군의 전망일인 음력 정월 3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정충묘 홍살문



정충묘 제향

## 정뇌경 묘지석 및 함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장지동 675-2

지정사항 |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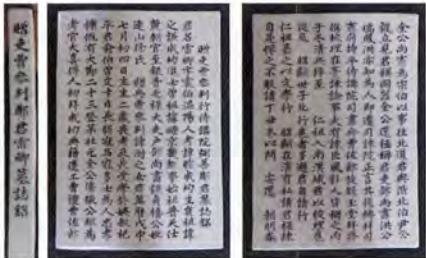
병자호란 때 청에 볼모로 간 소현세자를 배종(陪從)한 정뇌경(鄭雷卿, 1608~1639)의 묘소에서 출토된 석함(石函)과 그 안에 넣어둔 청화백자 묘지석(墓誌石)이다. 2006년 5월 장지동 소재의 정뇌경 묘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석 아래에서 발견하여 온양정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발견 당시 묘지석은 화강암을 치석하여 제작한 석함 안에 모래를 깔고 2매씩 3단으로 포갠 다음 맨 위에 1매를 안치하였다. 모두 7매로, 청화로 명문을 필사한 뒤 유약을 입혀 구웠다. 청화의 발색은 대체로 검은 빛이 약간 돌면서 푸른색이 선명하다. 전체적으로 휙거나 균열이 간 곳 없이 깨끗하게 번조되었다.

묘지명의 제목은 '증이조참판행시강원필선정군묘지명(贈吏曹參判行侍講院弼善鄭君墓誌銘)'이고, 각 9행 19자 분량으로 종횡을 맞추었다. 각 장의 뒷면은 아무런 명문이 없으며, 모래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묘지명(墓誌銘)은 정두경(鄭斗卿)이 1660년(현종 1) 6월에 지었고, 정뇌경의 아들 정유악이 1674년 3월에 추기를 썼기 때문에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태로 볼 때 광주분원에서 제작된 최고급 백자로 평가된다. 사각형의 석함은 뚜껑 상면에 '上' 자를 음각하여 매설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뚜껑 안쪽을 약간 돌출시켜 석함과 꽉 맞물리도록 만들었다.



▲ 충정사 현판

정뇌경 묘지석(일부) ▶



#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 김췌 묘역내 묘표 · 문인석

지정일 | 2008년 12월 4일 소재지 | 곤지암읍 삼합리 산50-1

지정사항 |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제3호



김약시 묘 전경

김약시(金若斯, 1335~1406)의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음촌(陰村),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고려 말인 1382년(고려 우왕 8)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조선이 개국된 후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가 광주 금광동(현 성남시 금광동)에 은거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김약시 묘는 곤지암읍 삼합리와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경계 도로변 좌측의

국청개 마을 경모재(景慕齋)의 배후 산중턱에 남향하고 있다. 원래 성남시에 있었으나 1972년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표는 1727년(영조 3)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대제학 이재(李緯)가 짓고 글씨는 김약시의 방계 후손 김조택(金祖澤)이 썼다. 비석은 원수(圓首)형으로 자연석을 대장 다듬은 반침돌을 썼는데, 규모는 높이 149cm, 최대폭 64.5cm, 두께 20.5cm이다. 이 비석은 전 왕조인 고려에 충절을 지킨 이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16세기 이후에 건립된 몇 가지 예의 하나이다.

문인석(166cm)은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복두공복(幞頭公服) 양식으로 마모가 심한데 훌을 마주 잡은 양 손은 가늘고 작다. 그 옆의 석인(石人, 118cm)은 복두공복 양식이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얼굴(39cm)은 과장되어 전체 크기의 1/3을 차지하고, 눈·코·입을 우스꽝스럽게 배치하였다. 옆에서 본 모습은 분명 두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쪽에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목을 표현하기 위해 깊은 흠을 내었다. 몸통은 사각기둥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양손을 가운데 모으고 64×9cm의 긴 훌을 잡고 있다. 양손 모두 손가락 5개씩 표현하느라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발은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다.



김체 묘표



김악시 묘표



김악시 묘 석인(암)과 문인석(뒤)

김체(金萃, ?~1452)는 김악시의 아들로 15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1444년(세종 26) 세종의 명을 받아 청주 초수리(椒水里 : 수안보)에 가서 목욕하고 안질을 치료한 후 '안질이 조금 나았다'고 복명하여 세종이 초수리에 가서 안질을 치료하는데 공을 세웠다.

김체 묘표는 하엽방부(화관형) 형태로 하엽과 비신을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건립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신에는 사주(四周)에 경계선을 치고 가운데에 두 줄로 “星州牧使金君諱萃妻令 人庇仁縣夫人金氏之墓”라고 하여 묘주(墓主)를 밝혔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녀를 구분하여 1줄씩 쓰는데 부인 쪽의 글자 수가 많아 계속 이어 쓴 점이 특이하다. 김체는 품계가 4품에 머물러 당상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군이라 표현하였다.



김체 묘 전경

## 이극증묘역 내 석물

지정일 | 2011년 7월 26일 소재지 | 초월읍 지월리 산37

지정사항 |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제4호



이극증(李克增, 1431~1494)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위(景祁), 시호는 공장(恭長)이다.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의 아들로 1456년(세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68년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으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졌고, 1470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국가 경비의 식례(式例)인 『식례횡간(式例橫看)』을찬정(撰定)하였다. 1471년(성종 2)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를 받았고,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계되어 호조판서가 되었다. 1482년 병조판서를 거쳐, 1484년 겸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로서 문묘를 수축하고 동무(東廄)와 서무(西廄)를 넓혀 위판제도(位版制度)를 일신하였다. 또 향관(享官)의 재숙소(齋宿所)를 정록정(正錄廳)의 북에 두었고, 관사의 무너진 곳을 고쳐 새롭게 하는 등 학궁(學宮)에 공이 컸고, 1488년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이극증 묘역은 원래 성남시 야탑동에 있었으나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991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원래 단분(單墳)이었으나 묘를 새로 조성하면서 합장하였다. 옛 석물과 새로 제작한 석물이 함께 있는데, 옛 석물은 묘표·상석·장명등·문인석 1쌍·향로석이 있고, 묘를 새로 조성할 때 묘표와 혼유석·상석·향로석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묘역 내 석물은 15~16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시대적 변화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작품으로서 학술적·조형적 가치가 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묘표는 사각형의 받침에 비의 윗부분이 둥근 방부원수 형태이다. 전면에 “輪忠保社錦靖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廣川君兼知經筵事同知成均館事□□□謚恭長公李公之墓”라 되어 있으며, 글씨의 일부는 낡고 오래되어 판독이 어렵다. 4각 형태의 장명등은 체석(體石)과 자봉돌로 이루어져 있다. 체

석은 하단과 중단 사이에 홈을 내었고, 중단에는 4각형의 테두리를 만들어 문양을 새겼으나 판독이 어려워 확실하지는 않다. 화창(火窓)은 団자 형태로 한쪽만 내었다. 지붕돌인 개석은 사각 지붕 형태로 만들고 꼭대기에 원수를 올렸다.

망주석은 하나의 돌로 대석(臺石)과 몸돌을 조각하였고, 기둥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문인석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15세기 말 연산군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얼굴 표현에서 입주변이 둥툭하게 표현되었다. 흙을 잡은 손가락의 표현이 미숙하며 옷 주름은 사선으로 길게 발등까지 내려왔다. 허리에는 야자대를 둘렀는데 앞뒤로 끄트머리가 사선으로 흘러내리게 조각되었다.



이극증 묘표



이극증 묘 장명등



이극증 묘 문인석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이택재

지정일 | 2013년 10월 15일 소재지 | 충대동 197-2

지정사항 |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제5호



의 중대동)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실학의 종장(宗匠) 성호 이익(李瀨, 1681~1763)에게 사사(師事)하며 학문의 성취를 이루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을 포함하여 약 48종에 달하는 저서를 저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을 이택재(麗澤齋)에서 지었다. 안정복이 자신의 서재를 '이택재'라 이름 지은 이유는 자신을 비롯한 성호 이익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학문을 궁구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였다고 한다.

이택재는 1761년 장건 이후 안정복 생전인 1786년(정조 10)에 한 차례 다시 지었으며, 약 100년 후인 1880년(고종 20)에 후손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근래 보수하면서 약간 바뀌었으나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목조 팔작지붕 건물로, 전면 퇴칸을 개방하여 제사지내는 용도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선후기 전형적인 제사 건물의 격식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낮은 기단 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처마를 받치는 공포를 짜지 않은 민도리집 흙처마로 되어 있다. 현재 일부 부재를 후대에 교체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가구 구조나 기둥 크기 등은 조선후기 건축 기법이며, 전체적으로 안정복의 검약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 한산병은(漢山病隱) · 우이자(虞夷子) · 상현(樵軒),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712년(숙종 38) 12월 충청도 제천 현 유원(지금의 제천시 대향동 느릅원)에서 안극(安極)과 전주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를 본향으로 한 광주 안씨는 조선시대에 명문가였으나, 남인에 속하여 조선후기의 가세는 좋지 못 했다. 1736년(영조 12) 봄에 덕곡(지금

광주  
문화유산의  
송결을  
찾아서

# 승렬전 제향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717

지정사항 |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제1호

승렬전(崇烈殿) 제향(祭享)은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과 조선 인조대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을 위한 제향이다. 매년 가을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유도회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행례의 절차는 유교 예법에 의해 진행되며, 제복은 조선시대 금관조복(金冠朝服), 제기는 종묘제기(宗廟祭器) 양식으로 마련된다. 제물로는 쌀·좁쌀·피·기장·마른조기·생선·대구포·소고기·포·절인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의 육류와 은행·밤·호도·대추·잣 등을 쓴다. 미나리·고사리·도라지·부추 등의 채소는 정갈히 다듬어 아래위를 묶어서 올리며, 무청이 반쯤 있는 작은 통무를 올린다. 특이하게 적(炙)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숙성시킨 편육을 쓰고 양고기와 토끼고기를 쓴다. 토끼는 가죽을 벗기고 목을 없애 것을 통째로 쓰는데 유래는 알지 못한다.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이 관리되고 있다. 제의는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을 올려 즐겁게 해 드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를 거치며, 전폐례-초현례-아현례-종현례-사신례-음복례-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승렬전 제향



◀ 승렬전 제향, 대전 진설

승렬전 관세위 ▶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현절사 제향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310-1  
지정사항 |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제2호



현절사(顯節祠)는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당한 후 참형에 처해진 오달제·윤집·홍익한 등 3학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688년(숙종 14)에 남한산성 안에 세운 사당이다. 1693년(숙종 19) 현절사로 사액되었으며, 1700년(숙종 26) 척화대신이었던 김상현과 정온을 함께 배향하면서 현 장소로 옮겨지었다.

원래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中丁)일에 제향(祭享)을 올리고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 삽망분향(朔望焚香) 하였으나, 지금은 매년 가을 음력 9월 10일에 추향을 올리고, 도지사 취임 등 사안이 있을 때 고유제를 올린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은 현절사 총무가 관리하고 있으며, 행례 절차는 승렬전 제향과 같고, 누구나 참석해서 제를 지낼 수 있다.

승렬전 제향보다 격을 낮추려 하나 제복이나 제기, 제물, 제관 등에서 큰 차이는 없다. 제물은 찹쌀·멥쌀·기장 등의 곡물과 미나리·도라지·부추·죽순·청저 등의 채소, 마른조기·대구포·소고기적·어포 등의 어육류, 밤·호도·잣·은행 등의 과실을 올린다. 이와 관련하여 오달제의 유고집에는 현절사의 진설도식이 있어 제향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수의 조리 방법은 승렬전 제향과 같으며, 요즘에는 죽순 대신 고사리를 쓰고, 토끼와 절인 소고기가 없으며, 과일은 올리지 않는다.



현절사 제향, 5위 진설



현절사 제향, 초헌례



현절사 제향, 축문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광주 광지원 농악

지정일 | 2011년 7월 26일 전승 단체 |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지정사형 |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제3호

중부면 광지원리는 현재 면사무소 소재지로 서울과 남한산성의 교차로에서 남한산성 입구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형이 완만한 구릉으로, 광지원 초등학교가 위치한 '안말'과 길 전너바깥에 위치하는 '바깥말', 그리고 광지원교너머 섬처럼 떨어져 있는 '섬말'로 이루어져 있다.

광지원리에서 전승되는 농악의 역사는 전승자들의 구술과 여려 민속놀이 등을 염두에 둘 때 적어도 200~400년 정도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광지원 농악(廣州 光池院 農樂)이 인근에 주둔했던 둔전병(屯田兵)들이 즐긴 군악(軍樂)의 일종일 수 있어 그 연원은 훨씬 오래 전까지 소급하여 볼 수도 있다.

광지원리에서는 1970~1980년대까지도 정월 초이튿날부터 대보름 전날까지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했고, 농번기에는 모를 심을 때와 깃을 맬 때 풍물을 쳤으며, 그 밖에 해동화 놀이를 비롯해 마을의 경사나 개인의 회갑연 등에서도 풍물을 치는 등 근래까지도 활발히 전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주민들의 고령화, 농사일의 기계화, 잣은 이주로 인한 주민의 감소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말에는 단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광주 광지원 농악(廣州 光池院 農樂)이 새로운 부흥을 맞은 것은 1997년 광주종합고등학교(현 광주중앙고등학교)에 농악단이 창설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의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날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모태가 되는 풍물매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이후 광지원 농악단은 보다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되었고, 2009년에 광지원농악보존회가 결성되었으며, 2010년에는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창립되어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정기공연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산이리 지석묘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초월읍 산이리 236-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1호



산이리 지석묘는 3번 국도변 벽산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보호 철망과 안내판이 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원래의 장소에서 약 10m 이전하여 복원한 것이다. 곤지암천이 북서쪽에 흐르고 있으며 완만한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이전할 때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 길이 620cm, 단축 길이 390cm, 두께 70cm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한쪽 모서리에 성혈(生穴)이 관찰된다. 판석재 받침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장벽은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턱자 모양의 지석묘로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백인대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곤지암읍 열미리 산174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2호



백인대(白刃臺)는 열미리의 곤지암천이 지나는 절벽에 있는 정자이다. 배를 타고 하천을 건너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송시열이 이 지역 출신의 제자로 알려진 구문찬과 강론하며 시문에 대한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이다. 1937년 구문찬의 후손이 육각정을 지었으나 훼손된 것을 1996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백인대는 6각형 단층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초익공 겹처마에 모임지붕으로 꾸몄다. 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며, 내림마루 끝단에는 망와를 세웠다. 모임지붕 한 가운데는 절병통을 세웠으나 지금은 탈락되어 떨어져 있다. 정자 외곽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남종면 분원리 116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3호

조선시대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설치되었던 분원리에 모여 있는 19기의 비석군(碑石群)이다. 선정비 16기, 송덕비 2기, 시혜기념비 1기가 세워져 있다. 이곳의 선정비는 사옹원 도제조와 제조, 번조관, 그리고 군수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송덕비는 면장과 학교장을 지낸 단산빈씨와 전낙규의 것이고, 시혜기념비는 흉년에 재산을 출연하여 동민(洞民)을 살린 단양우씨를 기리는 내용이다. 각 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월당암 건설전 석비군 (우전리)



월당암 건설 후 석비군 (분원조동법교)



현대 석비군 모습(분원 백자관 앞)

비 제	건립연대	관련인물	비 고
司饔院都提調李公時秀惠民遺愛碑	1823년	이시수	隨事斗護 罷每從寬
司饔院都提調蔡公濟清□□□	1825년	채제공	
司饔院都提調趙公寅永善政碑	1847년	조인영	
司饔院都提調金公興根善政碑	1865년	김흥근	
司饔院都提調朴公珪壽善政碑	1877년	박규수	
司饔院提調綾昌君清德善政碑	1755년	이숙(李櫟)	愛恤匠民 永世不忘
司饔院提調徐公左輔善政碑	1844년	서좌보	
司饔院提調朴公岐壽善政碑	1847년	박기수	
司饔院提調興寅君善政碑	1867년	이최응(李最應)	
司饔院提調閔公泳達善政碑	1890년	민영달	
燭造官趙公行鎮善政碑	1847년	조행진	
燭造官丁公學淵善政碑	1859년	정학연	
燭造官沈公英慶善政碑	1867년	심영경	
燭造官洪公大重善政碑	1872년	홍대중	
燭造官金公啓永善政碑	1880년	김계영	公正□□
行郡守金公老淳善政碑	1847년	김노순	
丹陽禹公施惠紀念碑	1934년	단양 우씨	이름 미상
面長丹山樊氏頌德碑	1941년	단산 빈씨	이름 미상
全公洛奎頌德碑	1941년	전낙규	

## 신남성 동·서 돈대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검복리 산99-6 외 5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4호

신남성(新南城)은 남한산성의 제7암문에서 1.5km 떨어진 검단산 정상부에 쌓은 성으로 남격대라고도 한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여 호준포와 홍이포 7~8문을 포진시켜 성 안쪽을 공격했던 곳이다. 1710년(숙종 36) 남격대에 돈대(墩臺)를 쌓았으며 1719년 수어사 민진후가 개축하였는데, 둘레가 743보, 여첩이 238타였다고 한다. 이후 1753년(영조 29)에 신남성 주변에 2개의 돈대를 쌓았다.

동돈대는 검단성의 2번째 봉우리에 세워졌다. 둘레 134m이고, 성벽의 두께는 4.3m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 면적은 1,381m<sup>2</sup>이다. 평균 높이는 4m 내외이고 안쪽에 1m 정도의 단이 조성되어 있다. 돈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서쪽의 출입구에 놓은 홍예석(虹霓石,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문이나 다리를 쌓을 때 쓰는 쌔기형의 돌)도 차량 진입을 위해 확장하여 신축하였다.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에 있다. 남한산성 동쪽의 한봉과 함께 산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서돈대의 둘레는 121m이고, 성 안쪽의 면적은 998m<sup>2</sup>로 동돈대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시계는 더 좋다. 서쪽 부분 성벽이 5m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원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돈대의 내부도 훼손되었으나 출입시설과 외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출입구는 아치형으로 정교한 무사석(武砂石, 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 위에 5매의 홍예석을 올렸는데 폭과 높이 모두 152cm이다.



신남성 동돈대



신남성 서돈대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 남옹성 무인각석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산137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5호



남옹성 무인각석(戊寅刻石)은 1638년 남한산성 남옹성 수축을 담당한 감독관, 목수, 장인의 이름을 새긴 1,170×67×55cm 크기의 돌로 총 105자가 기록되어 있다. 원래 홍예문의 한쪽 벽에 세웠던 비석이나 성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허물어졌고, 비문의 글자는 상당히 마모된 상태이다. '무인각석'이라는 명칭은 비에 새겨진 '戊寅七月'이라는 수축 시기에서 딴 것이다.

책임자인 도청(都廳)은 광주부윤 홍전(洪珍, 1606~1665)이고, 별장(別將) 최만득(崔晚得), 영장(領將) 송효상(宋孝詳), 감역관 3인, 목수 양남(梁男) 등 74명, 석수 강복(姜福) 등 13명, 야장 이기탄(李己嘵) 등 2명, 담장(泥匠) 김돌시(金彊) 등 7명이 성역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남옹성은 돈대(墩臺) 아래 다시 돌출한 옹성을 두른 이중으로 된 성(城) 모양인데, 성문이 아닌 돈대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옹성이라 하기는 어렵다. 옹성 끝에 홍예문을 내어 사각의 성을 구축하고 3면에 포좌를 설치하였다.

## 서흔남 묘비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24-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6호

서흔남(徐欣南, ?~1667)은 광주에 살던 사노(私奴)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후 청군에 포위되자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자원하여 승려 두청(斗淸)과 함께 성 밖의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황해병사 이석달(李碩達), 전라감사 이시방(李時訪)의 장계를 성 안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서흔남은 적진도 정확하게 정탐하였는데, 택당 이식(李植)도 그를 통해 가족들이 피난했던 지역이 청군에게 험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서흔남은 훗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면천되고 관직을 제수받았다. 숙종과 정조도 그의 공을 기려 후손을 등용하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중정남한지』를 비롯한 각종 문집에 실려 있다.

비석은 2기가 있는데, 하나는 1667년(현종 8) 3월 13일에 건립한 것으로 앞면에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徐公之墓' 라 하여 비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고, 뒷면에는 '康熙六年丁未三月十三日立' 이라 하여 건립 시기를 적었다. 다른 하나는 절단되어 상단이 없는 상태로, 앞면에 '……大夫同知中樞府事……徐欣男之墓……韓氏附左' 라 하여 묘주(墓主)를 적고, 뒷면에는 '……五年八月十五日' 이라 하여 건립 시기를 적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서흔남 묘비 1



서흔남 묘비 2

## 탁지부측량 소삼각점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7호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호조에서 관장하던 호구·공부·전량·식화·조세·재정 등의 사무 가운데 조세와 재정 관련 사무는 탁지아문이 승계하고, 경제 관련 사무는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이 승계하였다. 탁지아문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탁지부(度支部)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의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탁지부는 근대적인 지적(地積)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설치한 삼각원점 가운데 1점이 1908년 수어장대 기단부 서쪽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탁지부측량 소삼각점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 기준으로 높이 22cm, 폭 12×12cm인 직육면체이다. 정상부에 ‘+’ 표시가 있고 전면에는 ‘度支部’ 라 읊어되어 있다. 이 삼각점은 조본원점(鳥本原點)을 기초로 하여 설치된 구소삼각점 34번 장대(將台)로 위도  $37^{\circ} 20' 37.445''$ , 경도  $127^{\circ} 10' 32.180''$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의 측량과 비교할 때 오차가 30cm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양호하다.



## 여성제 묘역 및 신도비

지정일 | 2011년 7월 26일 소재지 |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693-3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8호

여성제(呂聖齊, 1625~1691)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할아버지는 관찰사 여우길(呂祐吉), 아버지는 부사 여이랑(呂爾亮), 어머니는 영돈령부사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다. 참판 여이정(呂爾徵)의 양자가 되었다.

1650년(효종 1)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1654년 가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89년(숙종 15) 좌의정이 되고 이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여성제 묘역은 남종면 수청1리 마을 뒷산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에 함양여씨 묘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주변의 사산(四山)이 확실한 명당 터이다.

봉분 앞에는 계체석이 봉분의 지름 정도 길이로 놓여 있다. 봉분 앞으로 혼유석·상석·향로석·장명등이 차례로 있고, 좌우로는 망주석·동자석·문인석 각 1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묘표가 좌측에 세워져 있다. 혼유석은 봉분과 맞닿아 있고, 상석이 바로 연접해 있다. 상석은 계체석과 2개의 고석으로 받쳤는데,

근래에 고석이 교체되었다. 상석 전면에 '領謙政呂公床石'이라 주인을 새겼다. 4각으로 된 장명등은 4면으로 화창(火窓)을 내었고, 지붕돌은 4모 합작지붕 형태이나 파손된 상태이다. 8각의 망주석 몸체에는 세호가 조각되어 있는데 좌측은 올라가는 모습이고, 우측은 내려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동자석은 소매와 허리띠, 옷 주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태로 금관이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얼굴과 홀이 불어 있다. 묘표는 사각 받침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은 방부개석 형태로, 비문은 외손자인 황해도관찰사 오명준(吳命峻)이 기(記)하고, 친손자인 사간원정언 여광주(呂光周)가 글씨를 썼다.

신도비(神道碑)는 1704년(숙종 30)에 묘역 입구에 세웠으나 현재는 가옥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다. 비석은 사각의 받침대에 비신을 세우고 상단에 이무기가 조각된 방부이수 형태로, 거의 4m에 달하여 장중한 느낌을 준다. 받침인 대석에는 4면에 연화문을 돌리고 상단에 복련을 시문하였다. 이수는 쌍룡쟁주(雙龍爭珠) 형태로 구름에 둘러싸인 천상 세계에서 이무기가 여의주를 놓고 다른 이무기와 다투다가 여의주를 잡은 형상으로 발톱은 5개로 표현되었다. 비신은 청색이 도는 오석으로 비문은 남구만이 짓고, 유상운이 글씨를 썼으며, 전서는 생전에 여성제가 남긴 글씨 가운데서 집자하여 모사하였다. 이수와 방부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조각 솜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문의 상태도 양호하게 남아 있어 조각사와 서예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제 묘 장명등



여성제 묘 망주석 세호



여성제 묘 신도비



여성제 묘 동자석



여성제 묘 문인석

## 이 손 묘역 및 신도비

지정일 | 2011년 7월 26일 소재지 | 초월읍 신월리 산22-1, 산22-2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9호

이손(李蓀, 1439~1520)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방(子芳),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아버지는 평안도절도사 이수철(李守哲)이며, 어머니는 관찰사 이맹상(李孟常)의 딸이다.

1459년(세조 5)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학문은 물론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 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1470년(성종 1)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1513년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에 진봉되고 판중추부사를 지냈다. 50여 년의 관직 생활에 두드러진 과실 없이 나이 80이 넘도록 녹위(祿位)를 보전하여 시종 영화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손의 묘는 초월읍 신월리 두월마을 광주이씨 묘역에 있다. 묘소는 3계로 구분되어 상계에는 봉분, 중계에는 묘표와 묘제(墓祭) 석물, 하계에는 의장 석물을 배치하였다. 분묘의 형태는 이손과 부인의 묘가 나란한 좌우쌍분이다. 지대석을 놓은 뒤에 7각형의 호석을 2단으로 쌓고, 이맛돌을 얹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각각의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 형태의 하얀 대리석 묘표가 세워져 있다. 각각의 묘표 앞으로는 혼유석과 상석, 향로석이 차례로 놓여 있다. 하계에는 망주석 1쌍과 문인석 1쌍, 장명등이 세워져 있다. 망주석은 받침돌과 몸체가 분리되어 꽂는 형식이고, 육각형의 몸체에는 장식물을 표현하였다. 문인석은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복두공복 형태로 얼굴의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턱 밑의 갓끈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장명등은 도난당하여 근래에 다시 설치하였다.

묘소는 15세기 묘제에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16세기 전반기에 새로운 유형의 묘제를 시험하던 시기에 조성되어 다른 봉분에 비해 특이하게도 7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종 대에는 이와 같이 아직 3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묘소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바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석물은 1520년에 일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혼유석은 17세기에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여 조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밀려난 상석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였던 고석은 없어지고 새로운 고석과 향로석이 놓여있으며, 장명등도 도난당하여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나 망주석과 문인석은 당대의 석물로 조각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1520년(중종 15)에 세운 신도비(神道碑)는 묘소 바

로 아래에 있었으나 기울어질 조짐이 있어 약 50m 앞인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신도비는 거북 반침대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윗부분에 용(이무기)을 조각한 귀부이수 형태이다. 귀부는 규모가 작은 편으로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등에 6각형의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전체적인 조각은 크게 돋보이지 않고 비신보다 푸이 약간 클 뿐이어서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 비신과 한 몸인 이수는 앞면에 구름 속에서 2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에 있는 여의주를 다투는 형태이고, 뒷면에는 한 마리의 이무기가 조각되어 있다. 모두 굽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을 가진 모습이 생동감이 넘치게 표현되어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보이고 있다. 비신은 하얀 대리석으로, 앞면과 뒷면에 비문을 적었고, 전액은 “胡簡公神道碑”라고만 하였다. 비문은 이행(李荐)이 짓고, 김희수(金希壽)가 글씨를 썼으며, 전액을 쓴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무른 성질의 하얀 대리석에 새겼지만 글씨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당대의 명필이었던 김희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의 조각도 훌륭하여 석조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순 묘 봉분과 묘표



옮기기 이전의 이순 신도비



새로 조성한 이순 신도비각

# 동래정씨소평공파 종종 묘역 및 석물

지정일 | 2013년 10월 15일 소재지 | 장지동 산64-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10호

동래정씨소평공파(東萊鄭氏昭平公派) 종종 묘역은 소평공 정광세(1457~1514)와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정충량(1480~1523) 부자를 위시하여 모두 7대(代)에 걸친 종종의 묘역이다.

정광세는 1479년(성종 10)에 승사랑으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홍문관부수찬·사간원 정언·현납(獻納)·사헌부장령(掌令) 등을 거쳐 시강원보덕으로 서

연관(書筵官)이 되어 대가(代加)를 받자 3품관으로 승진하였다. 연산군 즉위 후 동부승지·우부승지·좌승지·개성유수를 거쳐 형조참판을 지냈으며, 강원도관찰사·안주선위사를 거쳐 중종대에 형조판서·평안도관찰사·지중추부사·공조판서·경기판서 등을 지냈다.

정충량은 1501년(연산군 7) 생원·진사시를 거쳐 1506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에 임용된 뒤 대교를 거쳐 1507년(중종 2) 봉교가 되었다. 이때 동료 김흠조(金欽祖)와 함께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의 신원(伸冤)과 사관(史官)의 직필(直筆)을 보장해줄 것을 주청하기도 하였다. 전적·현납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홍문관직제학을 거쳐 이듬해 도승지가 되었으나, 사헌부·사간원으로부터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라는 탄핵을 받아 곧 이조참의로 옮겼다. 기묘사화가 일어나 대간의 탄핵으로 공조참의로 논책을 받아 파직된 후 벼슬에서 쫓겨나 있다가 죽었다. 광주 장지동 동래정씨의 입향조이다.

장지동 산64-1번지에 위치한 동래정씨 소평공파 묘역은 원래 김포 통진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이장되었고 원래의 문인석도 옮겨왔다. 정광세 묘의 문인석은 중종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16세기 초반의 문인석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정충량 묘에는 묘갈 2기와 문인석 1쌍이 세워져 있다. 처음 세워진 묘갈은 하얀 대리석을 사용하여 비문의 상태가 불량하지만 김안국이 비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이었던 김희수가 글씨를 썼다. 운룡문을 조각한 이수의 조각이 우수하여 석비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비석의 전액은 “정공신도묘갈(鄭公神道墓碣)”이라 하여 신도비와 묘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석의 마모가 심해지자 광주의 대표적인 학자인 순암 안정복의 도움으로 1776년(영조 52) 방부개석 양식의 비석을 다시 만들어 나란히 세웠다. 정충량 묘의 문인석은 금관조복 양식으로 1776년 묘갈을 다시 세울 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석인(石人) 역시 흔치 않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충량 묘 밑으로 배치된 정수후, 정인수, 전주이씨, 정사민, 정홍보, 정공원 등의 묘에도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문인석을 1쌍씩 세웠고,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정광세 문인석



정광세 묘표



정충량 묘갈 2



정충량 문인석



정충량 문인석 얼굴 세부



정충량 묘갈 1 이수



정충량 묘갈 1

## 선동리 고분군

지정일 | 2013년 10월 15일 소재지 | 초월읍 선동리 302-2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11호

선동리 고분군(仙東里古墳群)은 초월읍 선동리 302-20번지 일원의 창고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수반하여 실시된 입회조사 및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입회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된 도요지군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회조사 결과 도요지와는 무관한 통일신라시대의 분묘군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보존 조치의 결과로 2010년 7월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석실묘 14기, 민묘 16기, 가마 1기 등 총 3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묘에 부장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물은 95점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횡구식과 횡혈식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그 중에서 5호, 6호, 7호로 명명된 석실묘들은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청의 보존 조치 명령에 따라 이전복원 되었다.

선동리 신라 고분군은 신라의 한강 점유 시점에서 재지 세력과 이동 세력 등의 역사적 변동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유적이다. 유사한 시기에 해당하는 용인 보정동 고분군이 비슷한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보아도 그 가치를 비교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발굴조사 후 이전 복원된 유구이지만 향후 역사 교육 자료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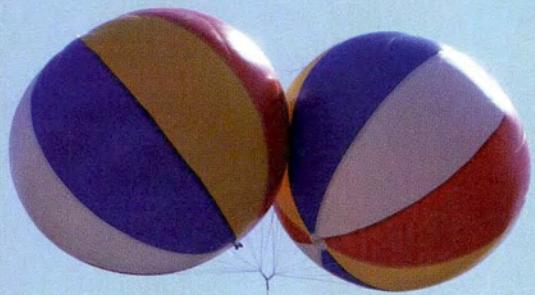
선동리 고분군 제7호 석실분



선동리 고분군 제7호 석실분 출토 유물

## 부 록

### 축 제 와 관 광



—  
광주  
문화의  
즐거움을  
찾아서





# 남한산성문화제



군사훈련 후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던 훈례의식

남한산성문화제는 1996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10월에 열리는 축제로 광주시가 진행하는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남한산성이 백제의 도읍지이자 국난 극복의 장소라는 '역사성'에 초점을 두고 기획한 축제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 하면 흔히 인조 때 청에 패배한 '삼전도(三川渡)의 굴욕'을 떠올리며 치열한 항전과 국난 극복의 장소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백제의 도읍지가 된 이후 거의 모든 왕조가 거쳐 갔으며 근·현대 천주교 박해와 항일의병, 군사감옥 사

건까지 아우를 만큼 다양한 역사적 스펙트럼을 내재하고 있는 장소이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의 역사적 자원을 살린 의미가 있는 축제라 하겠다.

소설가 김훈은 병자호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을 쓴 바 있으며, 남한산성은 조선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으로도 거의 유일하게 축성에 전 국민이 참여하였던 국민 화합의 공간이다. 또한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전국 8도의 승군, 중앙 및 지방 군병, 장인, 노비 등이 함께 참여하여 피로써 나라를 지킨 경험을 간직한 장소이고, 그 흔적이 남은 장소라는 사실만으로도 축제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현재 남한산성문화제의 콘셉트(Concept)도 이러한 민족적 항거와 국토수호의 정신사적 표징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호국(護國)'이라는 주제로 기획되고 있다.

남한산성문화제의 기원은 원래 산성 내 지역주민이 주축이 된 '대동굿' 행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광주시의 지역문화제로 전문 육성하기 위해 관 주도로 개최되고 있다. 남한산성 인근 마을에는 아직도 남한산성문화제와 별도로 수백 년씩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의 민속 문화가 존재한다. 엄마리를 비롯하여 중부면 일대의 장승제와 광지원리 해동화놀이, 광지원농악 등이 그것으로 현재도 잘 보존·전승되고 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이 주최하고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가을에 진행된다. 왕의 행렬이나 수어사 성과 순찰 재현, 대동굿, 전통 문화예술 공연 등과 함께 상설행사, 체험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4년의 경우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곳곳에서 진행됐다.

## 제19회 남한산성문화제(2014)

### [행사 개요]

- 기간 : 2014. 10. 17(금) ~ 10. 19(일) [3일간]
- 장소 : 남한산성도립공원(주 행사장 : 중앙 주차장)
- 주제 : "남한산성이여 비상하라! 세계로 ...."
- 주최 : 광주시, 광주문화원
- 주관 :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 [공연 및 주요행사 일정표]

구 분	1일차(10/17)	2일차(10/18)	3일차(10/19)
시 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13:00~ 14:00	광주시립농악단	광주시립농악단	광주시립농악단
14:00~ 14:30	줄타기공연	줄타기공연	줄타기공연
14:30~ 15:00	택견시범/ 아남한산성 플래시몹	택견시범	택견시범
15:00~ 16:00	광주오페라단 공연/ 동방의 울림(무용)	남한산성의 기상 (궁중무술)	남한산성의 기상(궁중무술)
16:00~ 16:30	개막식 (취고수악대/남한산성의 기상)	무예24기 시연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줄타기
16:30~ 17:00	개막 퍼포먼스 (주제공연)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줄타기	행궁 음악회

### [관람 및 체험]

구 분	개 요	장 소	체험 프로그램
행궁 문화존	궁궐 문화 체험	남한산성행궁	개 · 폐막식, 왕의 침전, 궁궐의 복, 왕실놀이, 다도, 내의원 둥의보감, 행궁 정문 근무식
조선시대 문화존	조선 문화 체험	행궁 옆 잔디마당	민속문화, 저잣거리, 농경문화, 전래놀이, 전통혼례, 가마타기, 대장간
과거시험 체험존	문과/무과 체험	연무관	문과시험, 무과시험, 군영 전시 체험
남한산성 주제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역사 관	남한산성 역사, 행궁, 문화재, 유네스코, 산성리 사람들, 영상관
축제 운영존	안내 및 지원센터	산성로타리 만남의 광장	운영본부, 행사 안내소, 프레스센터, 미팅룸, 의료지원, 홍보대 및 유모차 대여



#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비엔날레 미스코트 토야와 곤지암 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광주·여주·이천의 3개 행사장으로 나누어 매 홀수년에 격년으로 개최된다. 지역별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여 도자기 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득을 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비엔날레가 개최되지만, 도자를 주제로 한 비엔날레는 흔하지 않다. 특히 도자기를 주제로 한 비엔날레 중에서 규모와 내용면에서도 우수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제 도예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도자비엔날레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도자사상 중국과 견줄만한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수많은 명품들을 통해 도자기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년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은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한국 도자의 위상을 세우고, 한국 도자문화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국제행사이며, 국제적으로도 도자문화의 확산과 수요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도자예술과 도자산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작기를 초청해 세계 도자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자의 가치를 조명하고, 도자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이다.

한편,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홀수년에는 광주·여주·이천시의 지역도자기축제와 연계해서 개최되며, 비엔날레를 하지 않는 짹수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데, 광주시에서는 '왕실도자기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5년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색-Ceramic Spectrum"이란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31일 까지 38일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 등에서 진행됐다.

##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15)

### [행사 개요]

- 기간 : 2015. 4. 24(금) ~ 5. 31(일) [38일간]
- 장소 :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
- 주제 : “색-Ceramic Spectrum”
- 주최 : 경기도
- 주관 : 한국도자재단, GICB2015 국제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제도자협회(IAC)

### [주요행사]

구분	프로그램명
전시	광주특별전 '본색공감 : 동아시아 전통도예' / 이천특별전 '수령과 확산' / 여주특별전 '오색일화 : 감각을 채색하다' / 2015 국제공모전 / 제4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 공모전
학술행사 & 워크숍	국제도자학술회의 / 국제도자포럼 / 한국도자교육세미나 / 도자컨퍼런스투어 / 국제도자워크숍 / 한일세라믹스워크숍
도자문화이벤트	대한민국 도자 명장전 / 국제 장애인 도자공모전 / 야외환경도자전 / 토야지움 한국도자재단 소장품전 / 설치도자 프로젝트 '나도 도예가' / 네트워크 전시 / 2015 토력扁방 교육나눔사업 / 대한민국 명장회와 함께하는 도자경진대회
체험이벤트	토락교실 '비엔날레 특별프로그램 '알록달록 도자기 / 색으로 빛어요!' / 키즈비엔날레 시즌 3 '토야★팀悍대' / 명장 초청 행사 '안녕하세요! 도자명장님' / Clay Play 체험교실 / 이천 세라믹스 창조공방 '오픈 스튜디오' / 전통공예원 / 파이어 페스티벌 '불, 불, 불이야 ~!' / 흙놀이 이벤트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지역도자기축제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 / 제27회 여주 도자기축제

축제

광주  
문화의  
즐거움을  
찾아서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왕실도자기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되살리고, 역사적 배경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한국 도자에 대한 이해와 폭 넓은 도자문화 향유를 위해 199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청 도예문화사업팀에서 맡아 곤지암 경기도자박물관을 주 공간으로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천시·여주시와 함께 한국 도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광주시는 고급·종합 도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천과 생활도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여주와는 달리 왕실도자기를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광주는 지난 1994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7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백제철화용문 항아리'가 세계 도자기 경매사상 최고 낙찰가인 미화 842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 만큼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는 조선백자의 산실이기도 하다. 광주는 또한 무려 약 300개의 옛 가마터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성기 때는 무려 1,140명의 백자 도공이 있었을 정도로 규모로 보나 질로 보나 한국 도자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한국 도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왕실도자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단순한 전시만이 아닌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지역 문화의 체험과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친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도자 수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제1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4일간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되었다.

##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2015)

### [행사 개요]

- 기간 : 2015. 4. 24(금) ~ 5. 17(일) [24일간]
- 장소 : 곤지암도자공원
- 주최 : 광주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구분	프로그램 내용
개막 행사	식전행사 / 개막식 / 축하공연
전시/학술 행사	특별전 '동아시아의 전통도예전' / 한국전통도자공모전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 광주왕실도자 전시 판매전 / 강진청자 교류전
공연/이벤트	김경태와 함께하는 '도자쇼', 공개방송 / 한국무용 /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마당 / 힐링콘서트 / 조선 도공의 삶 / 불의 향연 / 오카리나 공연 / 편공연단 공연 / 코랄합창단 공연 / 광주시립농악단
참여/체험 행사	풀레체험 / 가족 및 단체 흙놀이 경연대회 / 장작가마 불지피기 / 전통물레·흙밟기·장식하기 체험 / 라쿠소성 / 초벌 그리기 / 가족 및 단체 캐릭터 만들기
기타/부대 행사	다래 시연 / 무양 쿠키 체험 / 손 씻기 체험 / 식중독 예방 총보 및 나트륨 줄이기 체험관 / 건강생활 실천 체험관 / 도자기 캔버스 그리기 / 네일아트 무료 체험
특산품	왕실옥미, 맛타리버섯, 표고버섯, 남한산성소주, 배, 포도, 한우600, 토마토



## 퇴촌토마토축제



퇴촌토마토축제 축하공연

개최된 퇴촌토마토축제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다. 30년간 축적된 재배 노하우로 퇴촌면 정지리 행사장 주변 약 7만 평 80여 농가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토마토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축제는 퇴촌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토마토축제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문화원, 퇴촌농협 등이 후원하고 있다. 2013년 제11회 퇴촌토마토축제는 “푸른빛 퇴촌·붉은빛 향기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6월 21일부터 23일 까지 3일간 퇴촌면 정지리 행사장에서 진행되었다. 각종 공연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와 함께 사생대회와 토마토 웰빙음식 시식회 등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퇴촌면 정지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양봉 수정 등 축적된 재배기술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난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퇴촌면은 팔당호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무공해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토마토를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참살이(웰빙)의 유행으로 건강에 주목하면서 토마토의 효능이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지자 2002년부터



퇴촌토마토축제 토마토 시식

## 제12회 퇴촌토마토축제(2014)

### [행사 개요]

• 기간 : 2014. 6. 20(금) ~ 6. 22(일) [3일간]

• 장소 : 퇴촌면 정지리 행사장

• 주제 : “퇴촌 토마토! 나랑 잘~ 맞아”

• 주최 : 퇴촌면

• 주관 : 퇴촌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 후원 : 광주시, 광주시의회, 퇴촌농협

※2015년 제13회 퇴촌토마토축제(2015. 6. 19(금)~6.21(일), [3일간]

### [주요행사]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체험 행사	토마토 수확 체험 /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 토마토 풀장 체험 / 토마토 바벨탑 쌓기 / 토마토 김치 만들기
시식/판매 행사	토마토 할인 판매 / 토마토 모종 판매 / 토마토 웰빙 음식 판매 / 토마토 품평회 및 시식회 / 토마토 주스 시음회 / 내 고장 특산물 전시 판매 / 광주시 농특산물 판매
공연/이벤트	합창단 공연 / 가야금 병창 / 까딸레나 / 핫썸머댄스 / 실버건강댄스 / 모듬 북퍼포먼스 / 청정 퇴촌 토마토 한마당 / 안데스 공연 / 경기민요 / 궁중무술 시범 / 청소년 밴드 연주 / 편편공연(섹소폰, 통기타) /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및 한국무용 공연/ 푸른숲학교 학부모밴드 연주 / 마술공연 / 7080 뮤지컬 공연
기타/부대 행사	광주시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 환경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 다문화 여성 장기자랑 / 태권도 시범





## 광주예술제

광주예술제는 2003년부터 한국예총 광주지부(광주예총) 주최로 국악·무용·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인형극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한마당 문화예술잔치이다. 각 협회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여 시민의 행사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축제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본래 명칭은 광주시문화예술제였으나 2007년 제4회 때부터 광주예술제로 행사명을 바꿔 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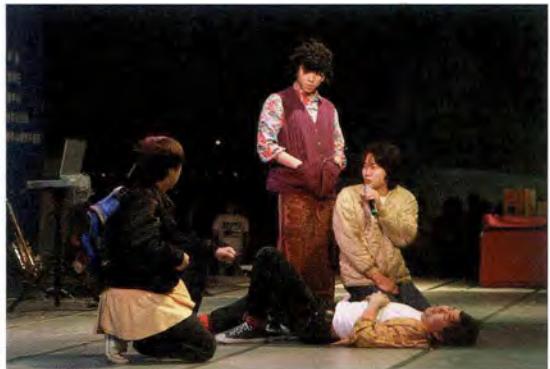
2013년 제10회 광주예술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청석공원에서 진행되었다. 24일 저녁 7시에 개최된 개막 축하공연에는 걸그룹 '달샤벳'을 비롯해 'd유닛', '슈퍼키드', '아이피지', '김영은', '이청', '전자현악 3인조' 등이 출연하였으며. 3일에 걸쳐 무용, 문학, 연극, 음악, 가요(연예), 미술,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했다.



광주예술제 연예인 축하공연

## 제10회 광주예술제 프로그램(2013)

날짜	행사 내용
5. 24	미술인전 및 사생대회, 시와 '퍼포먼스', 민정미무용단 공연, 시립 광지원농악단 대북 타고, 개막식, 초청가수 축하공연, 오색불꽃 쇼
5. 25	창작극 '원미동사람들', 시낭송회, 열린음악회, 광주시무용제
5. 26	시민가요제, 미술 시상식, 갈라 쇼 '행복한 세상' (연극), 광주시국악제, 시민가요제





# 남한산성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졌다. 남한산성 안에 백제의 시조 온조를 모신 사당 숭렬전이 자리 잡고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소였다.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인 인조는 한산성의 축성 및 봉진과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이곳 산성에서 맞고 보낸 바 있다. 오늘날의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부터 축성되어 1626년에 완공되었으며,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하여 숭렬전, 청량당, 지수당, 연무관 등이 들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 교통안내

- **잠실** → 복정사거리 → 약진로 → **남문**
-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 현인릉 → 세곡동 → 복정사거리 → **남문**
- **분당** → 모란 → 태평사거리 → 성남시청 → 신흥주공 → **남문**
- 수원 · 신갈 · 인양 · 의왕 → 분당 → **남문**
- 워커힐 → 길동 → 하남 → 광지원 → **동문**
- 중부고속도로 **광주 IC** → 서울방향 광지원(좌회전) → **동문**

## 동문

산성 남동쪽에 위치하며 좌익문이라 한다. 성문의 폭은 3.1m, 높이는 4m이다. 다른 문에 비하여 동문은 가장 낮은 지대에 축조되어 있고 계단을 구축하여 우마차의 통행은 불가능하였다.



## 서문

산성 북동쪽 모서리 부분의 해발 450m 지점에 위치하며 우익문이라 한다. 서문은 1637년(인조 15) 인조가 세자와 함께 이 문을 통해 청나라 진영으로 들어가 화의를 맺고 항복했던 문이다. 문의 폭은 1.46m이고 높이는 2.1m이다.



## 남문

산성 서남쪽 해발 370m 지점에 위치하며 지화문이라 한다. 1624년 산성 수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4대문 중 유일하게 현판이 남아있다. 성문은 홍예문과 문루로 구분되며, 홍예문은 높이 4.75m 너비 3.35m 길이 8.6m로 원상이 잘 보존되어 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축 양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남문은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으로 현재도 관광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 북문

북문은 해발 367m 지점으로 1624년에 신축된 성문이다. 전승문이라 칭하며, 문의 폭은 3.25m, 높이는 3.65m이다.



## 남한산성 등산로

### • 1코스(5km, 약 1시간 45분 소요)

산성종로(로터리)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영춘정 → 남문 → 산성종로(로터리)

### • 2코스(4km, 약 1시간 20분 소요)

산성종로(로터리) → 영월정 → 숭렬전 → 수어장대 → 서문 → 국청사 → 산성종로(로터리)

### • 3코스(5km, 약 1시간 35분 소요)

관리사무소 → 현절사 → 벌봉 → 장경사 → 망월사 → 지수당 → 관리사무소

### • 4코스(5km, 약 1시간 35분 소요)

산성종로(로터리) → 남문 → 남장대터 → 동문 → 지수당 → 개원사 → 산성종로(로터리)

### • 5코스(8km, 약 3시간 5분 소요)

관리사무소 → 동문 → 동장대터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영춘정 → 남문 → 동문



## 남한산계곡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남한산성 동문까지의 계곡은 4계절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뽐내는 계곡이다. 초입에서부터 맑은 물에 씻긴 바위와 돌들이 개울 바닥에 깔려 있고 잘 포장된 8km의 도로변에 벚꽃 가로수가 특히 아름답다. 드문드문 이랑 논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운치이고, 남한산성 주변에 흐르는 오전리 계곡·불당골 계곡·검복리 계곡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된다.

동문을 들어서면 군데군데 보이는 음식점에서 각종 토속 음식을 팔고 있어 시장기

를 메울 수 있고, 병자호란 벽화전시관과 지수당, 연무관, 협절사 등의 문화재가 많으며,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4대문과 잘 다듬어진 성곽이 어우러져 마치 조선시대의 한 지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산책하듯 성곽을 일주할 수 있도록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정겨운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남한산성 서쪽 주봉인 일장산의 낙조와 야경은 한 폭의 절경으로 사진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벌아래로 보이는 서울 시가지가 마치 장난감 같아 호연지기의 기상을 키우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일몰



남한산계곡의 설경

## 교통안내

- 잠실 → 복정사거리 → 약진로 → **남문**
-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 현인릉 → 세곡동 → 복정사거리 → **남문**
- 분당 → 모란 → 태평사거리 → 성남시민회관(구 성남시청) → 신흥주공 → **남문**
- 수원 · 신갈 · 안양 · 의왕 → 분당 → **남문**
- 워커힐 → 길동 → 하남 → 광지원 → **동문**
- 중부고속도로 광주 I.C → 서울방향 광지원(좌회전) → **동문**

광주  
문화의  
즐거움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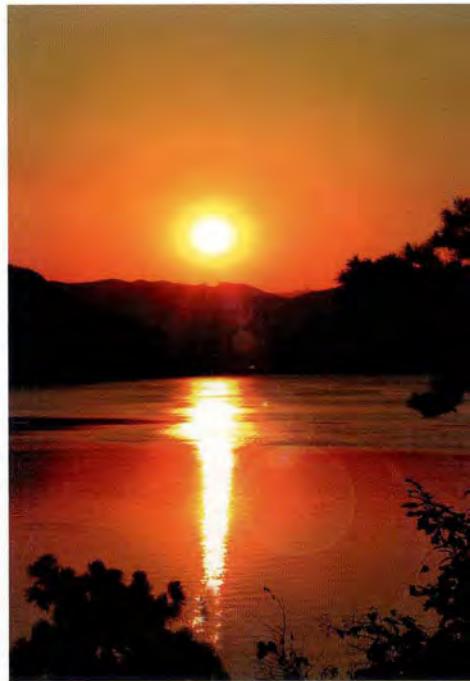


## 팔당호

팔당댐 조성으로 생긴 팔당호는 많은 옥토와 주거지를 삼키긴 했어도 광주의 명소가 아닐 수 없다. 남종면의 수청·검천·귀여·분원·금사·이석·삼성리와 퇴촌면의 오·정지·원당·무수·도마리 등이 호반에 얼굴을 비추며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호반 주위 음식점의 민물 매운탕과 장어의 맛 또한 찌든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고 물가에 드리운 고목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가족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화 트인 호수를 감상하며 멀리 강 건너 남양주와 양평 쪽에서 들리는 기적소리를 듣고 있자면 저절로 시상(詩想)마저 떠오르는 멋진 명소이다.





## 교통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서울 → 퇴촌까지[동서울터미널 기점-천호동-신장(하남)-번천-퇴촌]  
(첫차 05:40, 막차 22:40 / 배차 간격 20~25분)
- 퇴촌에서 남종면 분원리 자율순환버스 이용 : 약 8분 소요
- 광주에서 출발한 경우 : 광주시내(광주시 축협 앞) '퇴촌/남종행' 버스 이용  
(배차 시간 06:20, 8:15, 11:30, 12:40, 19:10)

### 자가용을 이용할 때

- 중부고속도로 → 광주I.C → 퇴촌사거리 좌회전 → 분원리 둔치 → 운동장 주차장

광주  
문화의  
즐거움을  
찾아서



## 천진암



앵자봉에 있는 천진암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조선시대 남인계 학자들이 강학을 통한 유교 경전과 한역 서학서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전파됐다. 1779년(정조 3) 겨울 앵자봉 기슭에서 학자 이벽의 천학 소개와 논증을 통하여 이승훈, 정약용 등 10명의 당대학자들이 우주만물의 진리탐구 토론의 학문으로 출발한 것이다.

천진암 터를 정비할 때 높이 15cm, 둘레 45cm의 높은 높이로 1개, 사기 그릇 1개, 글씨가 새겨진 기와 조각 등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천주교 창립 선조 5위의 묘가 모셔져 있다. 현재는 100년 계획에 의거 천진암 대성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성당 자리에는 1993년에 이곳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복문이 새겨진 30톤 규모의 제대석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 외부 공사가 완료된 천진암성지박물관이 있다.

## 교통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동서울터미널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퇴촌행 일반버스(13-2) → 퇴촌에서 하차 → 퇴촌에서 천진암 성지(매일 07:40~21:15분까지 일반버스 12번 운행 중)

### 자기용을 이용할 때

- 중부고속도로 → 광주I.C를 나와 우회전 → 45번 국도 → 팔당호 방향 → 도마치3거리 → 88번 지방도 → 광동교 → 도수초등학교 → 4거리에서 직진 → 천진암



천진암성지 박물관



천진암 대성당 자리(가운데 제대석이 보인다)



천주교 창립 선조 5위의 묘

광주  
문화의  
즐거움을  
찾아서



## 무갑산

무갑산은 높이 578.1m의 산으로 초월읍 무갑리 정상을 두고 곤지암읍과 퇴촌면으로 지맥을 뻗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 항복을 거부한 무인들이 은둔하였다다는 설도 있고 산의 형태가 갑옷(무갑)을 두른듯하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사방으로 뻗친 계곡이 깊고 물 또한 맑아 정상에 오르는데 힘이 드는 줄 모르게 한다. 북으로 퇴촌면을 눈 아래 보며 팔당호가 깔려있고 동으로는 능선을 따라 앵자봉에 이어지며, 남으로는 열미·연곡·건업리 등의 산자락 동리를 감싸면서 멀리 원적산과 대충한다. 봄이면 풍성한 산나물, 여름이면 우거진 녹음,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우며, 특히 겨울 눈꽃은 한라의 그것과 견줄만한 명산이다.





무갑산 정상의 표석



무갑산 원경



무갑산 정상의 돌탑

## 등산로

### • 1코스

무갑리 → 남동계곡 → 검은골(우회전) → 웃고개 → 암봉 → 정상

### • 2코스

무갑리 → 검은바위지대 → 무갑산 → 감로사 → 탄동

## 교통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1113-1, 1113, 113(동서울터미널) – 광주시(광주버스터미널) – 광주버스터미널(공영버스, 시내버스)  
– 신월리 경유 – 무갑리



## 경기도자박물관



를 판매하는 도자쇼핑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곧지암 경기도자박물관은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분청사기 등 조선 시대 관요에서 생산된 전통도자기와 그 전통을 계승하는 현대작기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며, 우리의 전통 도자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통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도자전통을 느끼게 해준다.

분원관요와 그 생산품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선백자 를 연구하고 유적의 발굴과 학술연구사업, 전통 도자문화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의 조선 도자 전문 박물관이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전」이라는 전통 도자공모전을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적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2개의 대형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규모의 야외조각공원과 장작 가마, 한국정원, 대례 시연장 및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 교통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500-1 : 잠실역 – 송파 – 성남 – 박물관(15~20분 간격)
- 500-2 : 남부터미널 – 교대, 양재, 성남 – 광주 – 박물관(20~30분 간격)
- 1113-1 : 동서울터미널 – 천호동 – 중부고속도로 – 박물관(10분 간격)

### 자기용을 이용할 때

-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 이용,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로 나와 3번국도이용



## 문화관광 해설사 예약

광주시에서는 광주지역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돋기 위해 문화관광 해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 **진행장소** : 역사관, 문화재 코스별 동행
- **해설시간** : 오전 10:30, 오후 1:30, 오후 3:00
- **문의전화** : 031-746-1088
- **문화관광 해설 예약하기** : <http://cafe.daum.net/welcomens>
- **예약접수**
  -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일주일 전에 접수
  - 신청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예약이 가능
  - 인터넷 접수 시 단체명, 담사인원, 담사일, 담사시간, 연락 전화번호 등 필요



##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함께하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광주시티투어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광주시티투어 : 광주시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현장체험을 통한 역사 학습의 장
-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청정도시 광주시는 물과 습지를 테마로 하는 환경 인식의 최적지

## 시티투어 안내 및 접수

- 예약문의 : 문화관광과(031-760-2723) / 해당 월 1일부터 접수
- 예약방법 : 전화 접수 후 입금 완료시 예약 확정(선착순)
- 예약취소 : 출발 3일전 100% 환불(그 외 환불 안 됨) / 운행취소 시 100% 환불
- 유의사항 : 예약 인원이 20명 이하 일 경우에는 운행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티투어 운행코스

## • 정규코스

코스	프로그램 내용
1코스(청정도시)	광주시청~남한산성~중식~물환경전시관~경안천습지생태공원~ 광주시청
2코스(역사도시)	광주시청~남한산성~중식~분원백자관~천진암성지~광주시청

## •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코스

코스	프로그램 내용
남한산성 1코스	현절사~연무관~행궁~침괘정~승월전(중식)~북문~연주봉음성~서문~수어장대 및 청량당~남문
남한산성 2코스	동문~지수당~현절사~연무관~행궁(중식)~침괘정~승월전~수어장대 및 청량당~서문~전망대~북문

## • 축제 코스

코스	프로그램 내용
왕실도자기축제	광주시청~남한산성(행궁)~중식~경기도자박물관~축제행사장 자유관람
퇴촌토마토한마당	광주시청~남한산성(행궁)~중식~토마토축제행사장 자유관람~경안천습지생태공원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시청~경안천습지생태공원~중식~남한산성(행궁)~축제행사장 자유관람

광주 廣州 의  
문화 文化 유 由 古 文

---

초판발행 | 2013. 12

2판발행 | 2015. 6

발행인 | 박기준 광주문화원장

발행처 | 광주시 · 광주문화원

발행일 | 2015. 6

기획 · 편집 | 대원P&D

---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은 저작권자(광주시 · 광주문화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사 · 복제 · 배포를 금합니다.



남한산성행궁 항공 전경



광주시 · 광주문화원  
Gwangju Institute of Culture